

한·EU FTA 체결에 따른 수출 유망 품목 | 과일 |

2011. 10

... 머리말 ...

2011년 7월 1일 한·EU FTA의 발효로 인해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경제권이 활짝 열렸습니다. 2010년 기준 EU의 GDP는 16조 3천억 달러로 미국의 14조 7천억 달러를 능가하며, 이는 세계 전체 GDP의 약 30%에 해당합니다.

또한 EU의 농림수산물식품 수입 규모는 1,832억 달러(역외교역 기준)로 일본의 895억 달러의 2배 규모이며 일본,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4위 수출 시장입니다. 이러한 EU와의 FTA 체결로 우리 농림수산물식품의 유럽 시장 진출 통로가 더욱 넓어지고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aT는 유럽 시장 개척과 수출 증대를 위하여 EU 27개국 중 한국 농림수산물식품 수입 규모 및 현지 식품 시장 규모가 큰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를 대상으로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비교적 큰 품목 중 한국산으로 대체 가능하며, 한·EU FTA 발효 시 관세 철폐 대상인 버섯, 과실류, 차, 소스류 등 9개 품목을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조사는 품목별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수출 마케팅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로테르담 aT센터를 통해 한국 농식품의 현지 시장 경쟁력과 시장 확대 여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료집이 한·EU FTA의 기회를 100%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한국의 FTA 허브 전략에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1. 10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이사 **박종서**

조사 개요

I.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일본,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4위 교역국이자 수출시장인 EU와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對 EU 수출 확대 가능 품목에 대한 EU 지역 내 경쟁력 수준 및 수출 확대 가능성에 대한 사전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 다변화 모색

❑ 조사 필요성

- 관세 등 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시장 진입 유망 품목 및 수출 경쟁력 강화 품목 발굴

❑ 조사 품목

- 면류, 과자류, 소스류, 과실류, 버섯류, 건강보조식품(인삼), 김, 차류, 음료류 (9품목)

❑ 조사 대상국

-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4개국)

❑ 주요 내용

- 시장개요
- 유통동향
- 소비동향
- 수입동향
- 통관 및 수입검사
- 한국산 수출확대 방안

❑ 조사기간 및 방법

- 조사기간 : '11년 5월 ~ 9월
- 조사방법 : 로테르담 aT센터

II. 주요 조사 내용 요약

과일류

가. 영국

시장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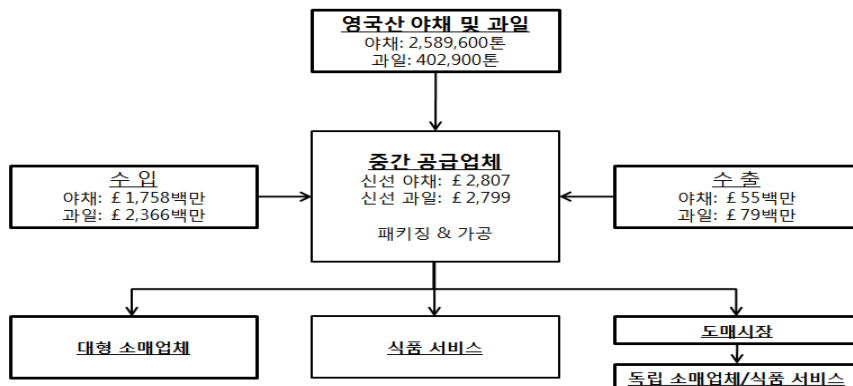
- 시장규모 : '06년 3,511백만 파운드 → '08년 3,942백만 파운드
 - '08년 경제 불황 이후 회복 단계로 '11년 이후에는 플러스 성장 전망
- 영국의 과일 품목별 시장규모
 - 바나나 641.8천 톤, 사과 581천 톤, 오렌지/탄제린/만다린 519.4천 톤, 포도 170천 톤, 배/마르멜로 126.3천 톤 수입
 - 슈퍼 푸드로 각광받는 크랜베리/블루베리는 '05~'10년 동안 1,303.7%의 성장을 보여 시장 규모가 37.9천 톤으로 집계됨

생산동향

- 과수과일의 재배 면적은 감소, 장과류의 재배 면적은 증가 추세
 - 과수과일은 저렴한 수입 과일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현지 재배 감소 추세이며, 장과류는 다양한 베리류가 인기를 얻으면서 재배 확대
 - 과수과일 생산면적 중 사과와 배의 비중은 97% 이상

유통동향

- 수입제품 유통구조



- 중간 공급업체는 대형 소매점 위주로 전체 물량의 약 80%를 공급
- 대형 소매업체들은 영국의 야채 및 과일 유통구조를 통합하는 역할 담당
 - 제품의 수입, 가공 및 패키지, 공급까지 맡을 수 있는 공급업체와의 거래 선호

❑ 소비동향

- 주 소비층은 4인 이상 가족, 중/고위급 경영직 및 전문직에 종사하는 중산층
 - 가족 구성원이 많은 경우에는 가격에 민감해짐
- 다양한 과일 소비 행태는 향후 시장 확대의 여지 시사
 - 식사 및 간식 대응, 요거트, 베이킹, 샐러드 등의 재료로도 사용
- 영국 정부의 건강한 식단 캠페인과 더불어 수요 증가 전망
 - 대다수의 소비자가 건강과 과일 및 야채를 직접 연관시키고 있으며, 건강을 위해 식단을 변경하여 섭취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수입동향

- 수입규모 : '09년 4,676.8백만 달러 → '10년 4,871.8백만 달러(3,565.8톤)
- 2010년 영국의 품목별 과일 수입동향
 - 포도 840백만 달러, 감귤류 660백만 달러, 사과 및 배 654백만 달러
 - 사과 및 배는 생산량 증가에 따라 수입량은 3년 연속 감소 추세
- 한국산 과일 중 가장 많이 수입되는 품목은 신선 사과 및 배
 - '10년 기준 신선 사과 및 배는 32천 달러 규모, 신선 또는 건조 감귤류 또한 3만 달러 가까이 수입됨
 - 한국산 신선 사과 및 배의 수입 가격은 평균 수입 가격의 절반 수준

❑ 한국산 수출확대 방안

- 다양한 수출 과일을 통한 현지 시장 공략
 - 현재 영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과일은 사과 및 배, 감귤류, 포도에 한정
 - 수입의존도가 높은 과일이나 현지 과일과 다른 외관 및 맛을 지닌 참외, 배, 유자 중심의 공략도 필요

- 현지 박람회 및 관련 산업잡지를 통한 홍보
 - Food & Drink Expo 및 International Food Exhibition 참석으로 바이어 발굴
 - 신선 과일 전문 잡지인 Fresh Produce Journal 등을 활용
- 현지 구매 상담회 개최
 - 런던 인근에 위치한 New Covent Garden, New Spitalfields Market 등과 같은 청과물 도매시장에 위치한 대형 수입업체들을 중심으로 현지 구매 상담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 구매 상담회를 통해 한국산 과일을 실제로 먹어보는 한편, 상담회에서 거래 상담은 물론 한국산 과일의 구매를 원하는 업체들을 도매시장별로 모아 공동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도 유효할 수 있음

나. 독일

▣ 시장개요

- 시장규모 : '05년 82억 달러 → '07년 97억 달러 → '09년 94억 달러
 - '05년부터 '09년까지의 성장률은 14.6%로 5년간 전반적으로 크게 성장
- 독일의 과일 품목별 시장규모
 - 사과 약 1.4백만 톤, 오렌지/탄제린/만다린 0.9백만 톤, 바나나 0.8백만 톤, 기타 과일 0.7백만 톤 수입
 - 시장규모 확대 품목 : 크랜베리/블루베리, 복숭아, 파인애플, 배/마르멜로
 - 시장규모 축소 품목 : 사과, 체리, 기타 과일, 레몬/라임
- 독일 과일 시장은 상위 3개 품목의 시장 점유율이 약 60%
 - 사과 26.6%, 오렌지/탄제린/만다린 17.5%, 바나나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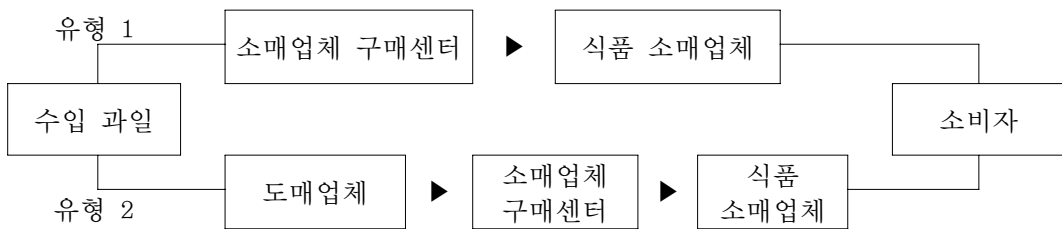
▣ 생산동향

- '09년 기준 생산면적이 가장 넓은 과일은 포도(시장 점유율 1위인 사과의 3배)
 - 품목별 재배면적 : 포도 10만 헥타르 이상, 사과 3.2만 헥타르, 딸기 1.3만 헥타르, 체리 0.54만 헥타르, 배 0.2만 헥타르

- 독일산 포도의 대부분은 신선 과일로 판매되지 않고 와인 제조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재배면적 대비 시장 점유율이 현저히 낮음
- '05~'09년 독일의 과일 생산량은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
 - 가장 생산량이 많이 증가한 과일은 플럼/오얏으로 무려 82.2% 증가
 - 생산량이 많은 신선 과일은 사과, 딸기, 플럼/오얏, 배, 체리 순
- 오렌지/탄제린/만다린은 독일 내 생산이 전무하여 전량 수입에 의존
 - 사과와 딸기의 자급률은 각각 80%, 70.7%인 반면 체리와 배는 50% 미만

☒ 유통동향

- 수입과일 유통구조



- 2010년 유통업체 유형별 과일 판매율
 - 소매업체 85.8%, 식품 서비스 업체 14.2%로 소매업체 비율이 꾸준히 증가
 - 디스카운터 업체의 과일 판촉 마케팅으로 인해 소매업체의 판매 확대

☒ 수입동향

- 수입규모 : '09년 7,715.9백만 달러 → '10년 7,612.0백만 달러
- 독일의 품목별 과일 수입동향
 - '10년 기준 바나나는 1,200톤, 감귤류는 1,080톤, 사과는 770톤이 수입됨
 - 최근 3년간의 수입규모 동향을 보면, 즉시 섭취 가능한 보존 과일 및 견과류와 같이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한 제품들의 수입이 증가 추세

☒ 한국산 수출확대 방안

- 유럽 유기농 인증 추진

- 독일의 신선 과일 유기농 시장은 다른 유럽에 비해 시장규모가 크고,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 따라서 유럽의 유기농 인증을 추진하여 제품의 품질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임
- 대형 중간 공급업체를 통한 판매망 구축
 - 기존 한국산 과일은 대부분 한국계 수입업체를 통해 수입되고 있음
 - 수입물량 증대 및 판매 확대를 위해서는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 제품을 납품하는 대형 중간 공급업체에 직접 수출하는 것이 좋음
- 현지 박람회 및 관련 산업잡지를 통한 홍보
 - 독일의 식음료 박람회인 Anuga FoodTec나 '12년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유럽의 대표적인 과일 관련 박람회인 Fruit Logistica 참석으로 바이어 발굴
 - 과일 전문 잡지인 Fruchthandel 등을 통한 마케팅

차 례

영 국 / 1



1. 시장개요	3
2. 생산동향	8
3. 유통동향	13
4. 소비동향	25
5. 수입동향	30
6. 통관 및 수입검사	39
7. 한국산 수출 확대 방안	43
8. 참고자료	46

독 일 / 47



1. 시장개요	49
2. 생산동향	55
3. 유통동향	60
4. 수입동향	64
5. 통관 및 수입 검사	74
6. 한국산 수출 확대 방안	78
• 부록 : 농약 관련 규정	81

영 국



1. 시장개요	3
2. 생산동향	8
3. 유통동향	13
4. 소비동향	25
5. 수입동향	30
6. 통관 및 수입검사	39
7. 한국산 수출 확대 방안	43
8. 참고자료	46

1. 시장개요

■ 시장규모

- 영국의 대표적인 시장 조사기관인 키노트에서 추정한 영국 신선 과일의 시장규모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3,940백만 파운드, 한화 7조원에 이릅니다

〈 신선 과일 시장규모(매출액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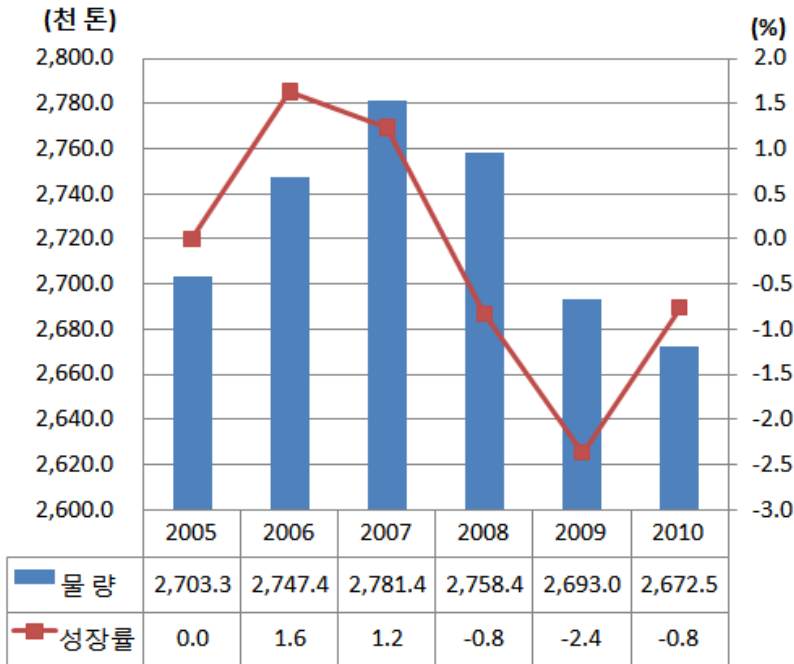
(단위 : 백만 파운드,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매출액	3,158.7	3,369.7	3,511.0	3,618.0	3,942.0
성장률	-	5.5	3.9	4.8	8.3

자료 : 키노트 2009

- 대부분의 신선 과일 시장규모 통계치는 물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유로 모니터는 2010년 영국의 신선 과일 시장규모를 약 2,672천 톤으로 추정함
-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의 시장규모 동향을 살펴보면, 2005년 이후 연속 2년간 지속적으로 시장규모가 증가하면서 2007년에 최고치인 약 2,781천 톤에 달함
- 2005-06년에는 최근 6년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인 1.6%를 기록함
- 그러나 2008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시장규모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2010년에는 약 2,672천 톤에 불과하여 2005년의 2,700천 톤에도 미치지 못함
- 아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이후로 시장규모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시장 성장률을 보면 2008-09년에는 -2.4%로 최근 6년간 가장 크게 성장률이 감소하였으나 2009-10년에는 성장률의 감소폭이 0.8%로 좁아짐
- 2011년 현재 영국 경제가 회복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2011년 이후에는 다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

〈 신선 과일 시장규모(물량 기준) 〉



자료 : 유로모니터 2011

■ 과일 종류별 시장규모

- 2010년 과일 종류별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바나나가 641.8천 톤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사과 581천 톤, 오렌지/탄제린/만다린 516.4천 톤 순으로 나타남
- 이 밖에 시장규모가 100천 톤이 넘는 비교적 시장규모가 큰 과일로는 포도 (170천 톤)와 배/마르멜로(126.3천 톤)가 있음
- 시장규모 상위 5개 과일을 중심으로 2005년 이후 6년간의 동향을 보면, 바나나를 비롯한 사과 등 모든 주요 과일이 2005년과 비교하여 시장규모가 감소하여 이 과일들이 전체 과일 시장규모 축소를 주도했음을 알 수 있음
- 이 중 바나나, 포도, 배는 마이너스 2% 미만의 상대적으로 적은 폭으로 시장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사과는 거의 5%에 가깝게 감소했으며 오렌지/탄제린/만다린은 10.8%가 감소함

〈 과일 종류별 시장규모 〉

(단위 : 천 톤)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사 과	610.4	624.6	612.0	614.4	589.9	581.0
바나나	654.0	664.0	672.0	678.7	651.6	641.8
체 리	13.0	15.0	16.0	16.7	16.4	16.1
크랜베리/블루베리	2.7	4.1	6.1	8.5	34.2	37.9
자몽/포멜로(pomelo)	31.8	31.1	31.0	30.8	30.3	29.8
포 도	171.5	176.2	181.2	186.3	173.3	170.7
레몬&라임	67.0	65.5	67.0	67.7	67.0	66.0
오렌지/탄제린/만다린	579.0	564.0	562.0	525.0	513.0	516.4
복숭아/자두	63.0	72.0	75.0	68.0	65.0	63.7
배/마르멜로(quinces)	128.0	129.6	135.0	137.8	128.2	126.3
파인애플	37.0	39.0	42.0	43.0	42.6	41.9
플럼/오얏(plums/sloes)	50.0	51.0	54.0	54.8	54.3	53.5
딸 기	41.0	46.0	52.0	41.2	44.5	49.0
기타 과일	254.9	265.3	276.1	285.5	282.7	278.4
전 체	2,703.3	2,747.4	2,781.4	2,758.4	2,693.0	2,672.5

자료 : 유로모니터 2011

- 시장규모 상위 5개 품목이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내는 가운데에서도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과일도 있음
- 특히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한 과일은 최근 슈퍼푸드라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크랜베리/블루베리로, 2005년의 시장규모는 불과 2.7천 톤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1,303.7%가 상승한 37.9천 톤으로 집계됨
- 크랜베리/블루베리와 더불어 2005-10년과 2009-10년 모두 시장규모가 성장한 과일은 딸기로 6년간 19.5%, 1년간 9.2%가 증가하여 2010년에는 49천 톤을 기록함

- 이와 같이 베리류의 시장규모가 성장한 것은 최근 영국 내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영국 소비자들의 관심을 이끌었다는 것과 딸기의 경우 기존 인기 품종인 Elsanta 외에도 Ava, Driscoll's Jubilee, Sweet Eve, Eve's Delight 등의 다양한 품종이 개발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과일별 시장 성장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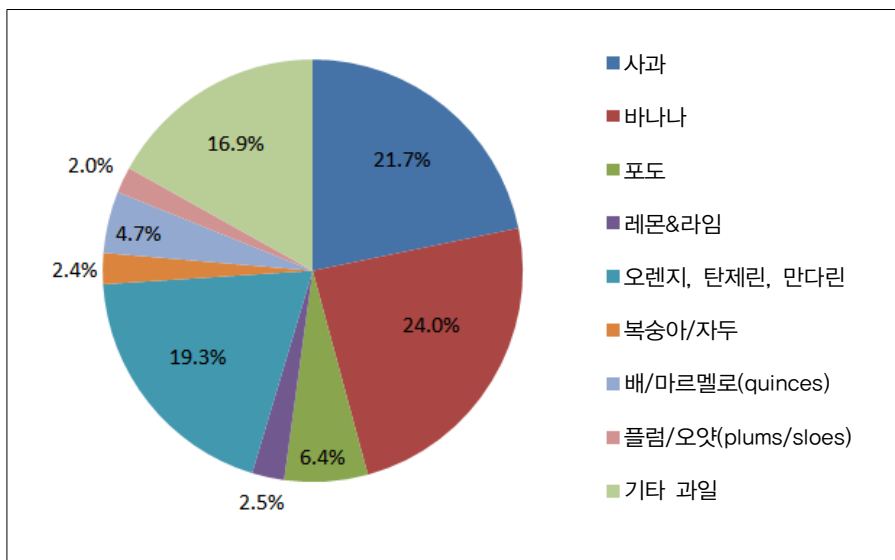
구 분	2009-10년(%)	2005-10년(%)
사 과	-1.5	-4.8
바나나	-1.5	-1.9
체 리	-1.9	23.8
크랜베리/블루베리	9.8	1303.7
자몽/포멜로	-1.7	-6.3
포 도	-1.5	-0.5
레몬&라임	-1.5	-1.5
오렌지, 탄제린, 만다린	0.7	-10.8
복숭아/승도 복숭아	-2.0	1.1
배/마르멜로(quinces)	-1.5	-1.3
파인애플	-1.7	13.2
플럼/오얏(plums/sloes)	-1.5	7.0
딸 기	9.2	19.5
기타 과일	-1.5	9.2

자료 : 유로모니터 2011

■ 과일별 시장 점유율

- 과일별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아래 차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나나와 사과가 각각 24.0%, 21.7%로 2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규모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과일이 바나나와 사과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 이상을 나타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오렌지/탄제린/만다린이 20%에 조금 못 미치는 1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과일 16.9%, 포도 6.4%, 배/마르멜로 4.7%로 나타남
- 바나나, 사과, 오렌지/탄제린/만다린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5%에 달하고 있으며 상위 5개 과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76%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과일 시장규모의 성장 여부는 이들 과일의 성장 여부가 결정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 5개 과일 외 품목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3%를 넘기는 과일이 없어 생산 또는 공급량이 급증해도 시장규모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과일별 시장 점유율 〉



자료 : 유로모니터 2011

2. 생산동향

■ 생산면적

- 2009년 기준, 영국의 과일 생산 면적은 약 28천 헥타르로 이는 2000년 33천 헥타르와 비교했을 때 약 15%가 감소한 수치임
- 과일 생산 면적을 과일 종류별로 구분해서 보면 사과, 배와 같은 과수 과일의 재배 면적은 18천 헥타르, 딸기, 블루베리와 같은 장과류 재배 면적은 10천 헥타르인 것으로 집계됨
- 2000년 이후 과수 과일의 재배 면적은 24천 헥타르에서 18천 헥타르로 25%가 감소하였으나 장과류의 경우는 오히려 9천 헥타르에서 10천 헥타르로 증가함
- 과수 과일의 경우, 저렴한 수입 과일과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나면서 재배 면적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장과류의 경우는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의 다양한 베리류가 인기를 얻으면서 재배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영국의 과일 생산면적 〉

(단위 : 천 헥타르)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과수 과일 (orchard fruit)	24	24	20	19	18	18	19	18	18	18
장과류 과일 (soft fruit)	9	9	7	8	9	9	9	10	10	10
과일 전체	33	33	27	27	27	27	28	28	28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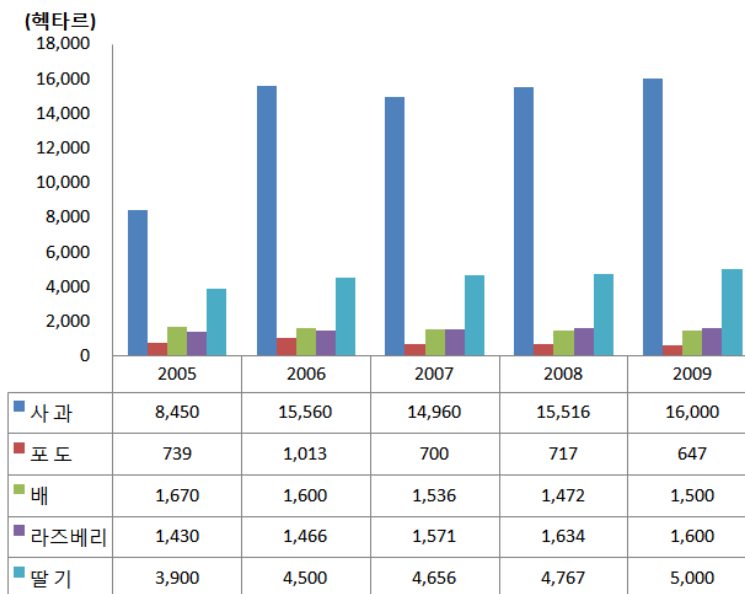
자료 : UK agriStats

- FAO에서 집계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영국에서 비교적 많이 생산하고 있는 사과, 배, 포도, 딸기, 라즈베리 5개 과일의 2009년 생산면적을 살펴보면 사과 재배면적이 16,000헥타르로 가장 넓고 딸기 5,000헥타르, 라즈베리 1,600

헥타르, 배 1,500헥타르, 포도 647헥타르 순으로 나타남

- 위의 영국 agriStats가 발표한 자료와 아래 FAO의 통계치를 비교 분석해 보면 전체 과수과일의 생산면적 18,000헥타르 중에서, 사과 생산면적은 16,000헥타르, 배 생산면적은 1,500헥타르로 나타남
- 즉, 전체 과수과일 생산면적 중 사과와 배를 생산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97% 이상으로 거의 10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과일 종류별 생산면적 〉



자료 : FAO 식품농업기구

-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과일 종류별 생산면적의 변화를 보면, 사과 생산면적은 2005년 8,450헥타르에서 2009년 16,000헥타르에 달하면서 거의 90%에 가까운 면적 증가율을 보임
- 사과는 디저트뿐만 아니라 영국 소비자들이 즐겨 마시는 알코올 음료 중 하나인 사이다의 원료로 사용되는 등 수요가 많아 생산면적이 증가함
- 사과와 함께 라즈베리와 딸기도 각각 11.9%와 28.2%로 두 자릿수 이상의 비교적 높은 면적 증가를 보였는데, 특히 딸기는 유일하게 5년 연속으로 재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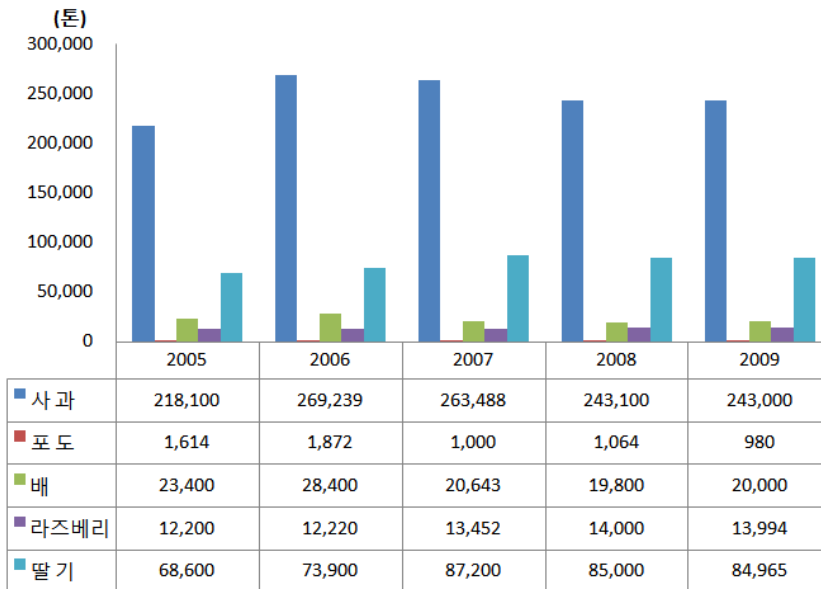
면적이 증가하고 있음

- 반면, 포도와 배를 재배하는 면적은 5년간 각각 12.4%와 10.2%가 감소함
- 포도의 경우 남아메리카산 씨 없는 포도가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영국산 포도의 수요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재배면적이 감소함

■ 생산량

- 2009년의 과일별 생산량을 보면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사과와 생산량이 243,000톤으로 가장 많음
- 다음으로 딸기 84,965톤, 배 20,000톤, 라즈베리 13,994톤, 포도 980톤 순으로 집계됨
- 생산량 순위는 생산면적 순위와 거의 일치하나 라즈베리와 배의 경우, 라즈베리의 생산면적이 1,600헥타르, 배 생산면적이 1,500헥타르로 라즈베리 생산면적이 1천 헥타르 더 넓었으나 생산량에서는 배가 라즈베리보다 6천여 톤이 더 많이 생산되어 배의 생산성이 라즈베리보다 높음을 보여줌

〈 과일 생산량 〉



자료 : FAO 식품농업기구

-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생산량 동향을 보면, 생산량이 가장 많은 사과
의 경우, 2005년에는 218,100톤이 생산되었으나 2009년에는 243,000톤이 생산되
어 10% 이상이 증산된 것으로 나타남
- 사과의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동기간에 재배면적이 90% 가까이 크게 증가
한데 따른 것이나 재배면적 증가율에 비해 생산량 증가율은 낮아 생산성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됨
- 딸기와 라즈베리 또한 2005년 이후 5년간 생산량이 각각 약 24%, 15% 가가
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두 과일 역시 사과와 마찬가지로 재배면적
이 28%, 12%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과일 생산량 증가율 〉

구 분	2005-09년(%)	2008-09년(%)
사과	11.42	-0.04
포도	-39.28	-7.89
배	-14.53	1.01
라즈베리	14.70	-0.04
딸기	23.86	-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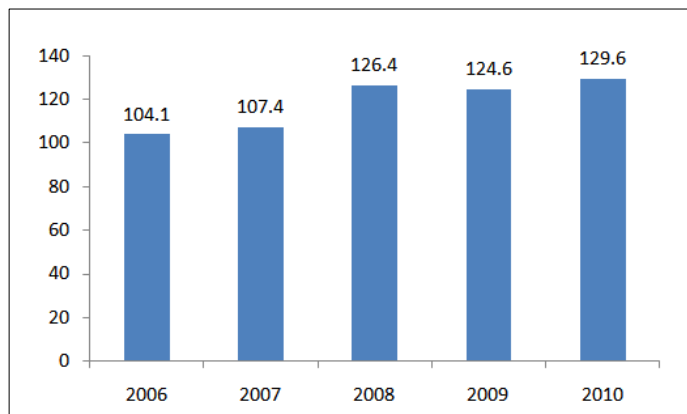
자료 : FAO 식품농업기구

- 반면, 포도와 배의 경우 각각 약 40%, 15%로 크게 감소했는데, 생산면적이
각각 12.4%, 10.2%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생산량 감소폭이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됨
- 포도와 배의 생산면적과 생산량이 다른 과일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
고 있는 것은 저렴한 칠레, 프랑스 등지에서 수입된 과일이 증가하면서 경쟁
력에서 밀려 생산면적도 생산량도 함께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생산비용

- 영국 Defra에서는 과일 생산 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통계자료는 발표하지 않으나 2005년의 생산 비용을 100으로 설정했을 때 상대적인 생산비용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아래 그림을 보면 2006년과 2007년의 과일 생산비용은 2005년보다 조금 상승하여 11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8년에 126.4로 크게 상승한 이후 3년간 지속적으로 124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
- 특히 2010년에는 5년간 최고치인 129.6달러에 달해 영국의 과일 생산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영국산 과일의 판매가격이 상승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경쟁력면에서 수입산 과일보다 뒤처지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음

< 영국의 과일 생산비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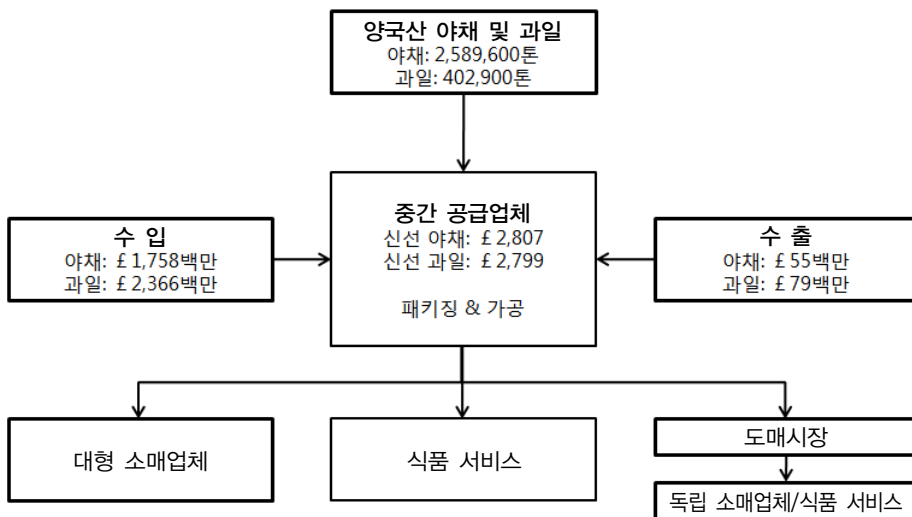
자료 : 영국 Defra

3. 유통동향

▣ 과일 유통구조

- 영국의 신선 야채 및 과일의 유통 구조는 생산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약 4단계로 요약될 수 있어 상당히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영국의 신선 야채 및 과일 유통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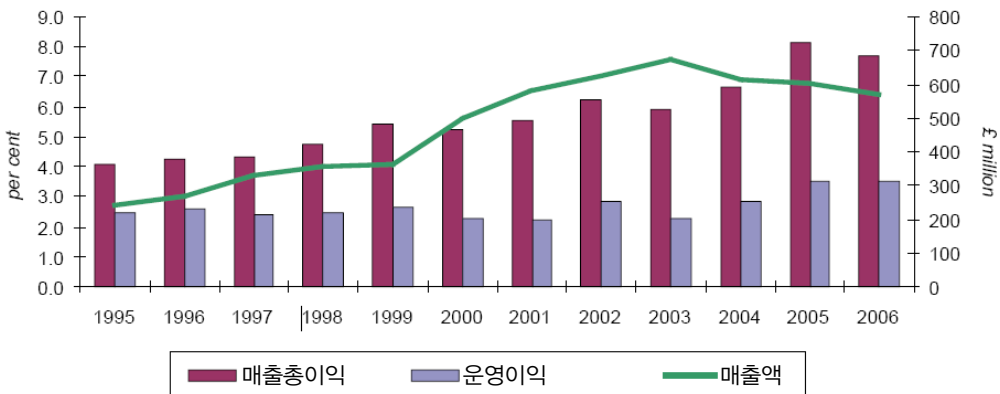
자료 : 유럽 식품 및 농업 파트너십(EFFP), 2010

▣ 유통 단계별 특징 및 현황

- 중간 공급업체(intermediaries)
 - 중개상(agents)은 신선 야채 및 과일 업계에서 중간 공급업체의 역할을 하면서 종종 대형 소매업체와 함께 협동 생산을 하기도 함
 - 중간 공급업체는 특정 대형 유통업체를 위해 단지 영국산 신선 농산물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수입산 야채 및 과일까지 구입하여 패키징하여 소매업체에 납품하고 있음

- 중간 공급업체는 생산자를 대신하여 소매업체에 제품을 납품하고 그 대가로 6-9%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수수료율은 생산업자의 회원등급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수수료는 패키징, 수송료, 마케팅 비용을 커버하지 않고 이 비용들은 중간업체가 대형 소매업체로부터 받는 총 대금에서 충당되고 있음
- 중간 공급업체들이 주요 대형 소매점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전체 물량의 약 80%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중간 공급업체들의 평균 매출 총 이익은 1995-2003년, 8년간 4%에서 6%로 상승했는데, 이는 판매 및 유통비와 같은 직접 매출비용이 매출 상승에 따라서 증가한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기 때문임
- 또한 운영 이익은 같은 기간 동안에 2-3%를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임
- 그러나 2004-2006년, 3년 동안에는 평균 매출 총 이익과 운영 이익이 각각 7.7%, 3.5% 상승했는데 이는 위와 같은 회계 정책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영국 과일 중간 공급업체의 매출액, 매출총이익, 운영이익 〉



자료 : www.competition-commission.org.uk

● 대형 소매업체(retailer)

- 대형 소매업체는 영국 신선 야채 및 과일 매출의 75%에서 높게는 80%까지 차지하고 있음
- 대형 소매업체들이 이와 같이 높은 매출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영국 전국적으로 다수의 소매 공급 체인, 즉 매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임
- 대형 소매업체들은 제품의 수입에서부터 가공 및 패키지, 공급까지 책임지고 맡을 수 있는 공급업체들과의 거래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이 영국의 야채 및 과일의 유통구조를 통합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영국의 과일류는 기후적 이유 때문에 종류 및 시기에 한계가 많아 대형 소매업체들은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영국산과 수입산을 모두 공급할 수 있는 4개 주요 중간 공급 마케팅 중개상에 상대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주요 4대 업체가 영국산 과일 공급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80%가량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과와 경우에는 86%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소비자들이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수입산 사과를 선호함에 따라 많은 대형 소매업체들이 다양한 사과 품종을 판매하고 있는데,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의 다양한 품종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식품 서비스(food service)

- 전통적으로 식품 서비스 분야는 소매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원산지 또는 품질에 제한을 받지 않아 보다 저렴한 수입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에는 국내산과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했는지를 중시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음
- 대형 식품 서비스 업체들로는 Pauleys/Brakes, 3663, Compass가 있으며 이 대형 식품 서비스 업체들도 대형 소매업체들과 유사하게 지역 유통센터를 통해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중간 공급업체들이 식품 서비스 업체보다는 대형 소매업체 납품에 집중하고 있어 공급 부족사태를 상대적으로 자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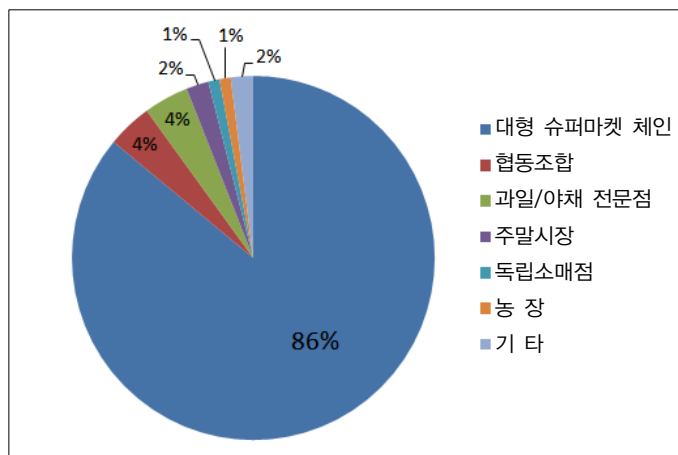
● 도매시장(wholesale markets)

- 도매시장은 신선 농산물을 독립적 소매업체들과 레스토랑, 2차 도매상인, 소규모 공급업체들에게 납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러나 도매시장은 전반적으로 수동적인 시스템으로 그 날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음
- 최근 도매시장에서 영국산 야채와 과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영국 산에는 프리미엄 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며 시장의 수요를 맞추기 위한 영국산 농산물의 공급은 도매시장의 큰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 영국의 주요 도매시장으로는 런던 인근에 위치한 New Covent Garden 과 New Spitalfields Market이 있음
- 이 도매시장은 런던 인근에 위치하고 있지만 거의 영국 전역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 소매업체 유형별 과일 유통비율

- 키노트는 소매업체 유형을 세분화하여 대형 슈퍼마켓 체인, 협동조합, 과일 및 야채 전문점, 주말 시장, 독립소매점, 농장, 기타로 구분함

〈 소매업체 유형별 과일 유통 비중 〉



자료 : 키노트


-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대형 슈퍼마켓 체인으로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86%의 점유율을 나타냄
- 이는 소비자들이 대부분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서 과일을 구입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다른 유형의 소매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미만으로 극히 적어 한국산 과일의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중간 공급업체를 찾아야 함을 시사함

▣ 유통제품 및 형태

- 사과와 배를 중심으로 영국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의 원산지 및 가격, 제품의 형태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 영국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서 판매 중인 수입산 과일 〉

구 분	브랜드	상 품	원산지	가 격
사 과	Golden Delicious		프랑스	£ 1.64/kg
	Pink Lady		프랑스	£ 3.29/kg
	Gala		뉴질랜드	£ 1.74/kg

배	Crunch conference pears		벨기에	55-60mm (5개입) £ 1.47
	Conference pears		네덜란드	65-70mm £ 1.97/kg
	Blush pears		칠레	65-70mm £ 2.49/kg

자료 : 직접조사

▣ 원산지별 가격 비교

- 같은 품종 내에서 제품의 가격은 원산지별로 다르게 형성됨
- 따라서 사과와 배를 중심으로 영국의 대형 슈퍼마켓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품종을 중심으로 원산지별로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고 가격이 높은 원산지 제품과 낮은 제품을 파악하고자 함

● Braeburn(사과)

- Braeburn 품종은 칠레, 이탈리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지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가격을 비교해 보면 칠레산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산이 킬로그램당 0.92-1 파운드로, 뉴질랜드 0.86파운드, 이탈리아 0.85파운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음

〈 Braeburn 원산지별 가격 비교 〉

원산지	중량	가 격(페니)	kg당 가격	가 격(파운드)
칠레	13kg	1,300	100	1.00
칠레	18kg	1,650	92	0.92
이탈리아	13kg	1,100	85	0.85
뉴질랜드	18kg	1,550	86	0.86
남아프리카 공화국	18kg	1,700	94	0.94

자료 : www.freshinfo.com

● Fuji(사과)

- Fuji 품종은 브라질, 중국, 우루과이 등지에서 수입이 되고 있으며 kg당 가격 및 파운드로 환산 시 중국산 Fuji 가격이 킬로그램 당 0.99달러로 가장 높고, 우루과이, 브라질 순으로 조사됨

〈 Fuji 원산지별 가격 비교 〉

원산지	중량	가 격(페니)	kg당 가격	가 격(파운드)
브라질	18kg	1,400	78	0.78
중국	10kg	991	99	0.99
우루과이	18kg	1,450	81	0.81

자료 : www.freshinfo.com

● Golden Delicious(사과)

- Golden Delicious 종은 주로 프랑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주로 12-13킬로그램과 18킬로그램의 두 가지 사이즈로 거래되고 있으며 12-13킬로그램 사이즈가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음
- 원산지별로 가격을 비교해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산은 작은 사이즈와 큰 사이즈 모두 다른 원산지별 제품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Golden Delicious 원산지별 가격 비교 〉

원산지	중량	가 격(페니)	kg당 가격	가 격(파운드)
프랑스	13kg	1,050	81	0.81
프랑스	18kg	1,350	75	0.75
남아프리카 공화국	12.5kg	1,050	84	0.84
남아프리카 공화국	18kg	1,400	78	0.78
네덜란드	12kg	1,000	83	0.83

자료 : www.freshinfo.com

● Pink Lady(사과)

- Pink Lady는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산이 주로 수입되고 있으며 거래 가격은 아르헨티나산이 프랑스산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 Pink Lady 원산지별 가격 비교 〉

원산지	중량	가 격(페니)	kg당 가격	가 격(파운드)
아르헨티나	6.5kg	1,300	200	2.00
프랑스	13kg	1,950	150	1.50

자료 : www.freshinfo.com

● Royal Gala(사과)

- Royal Gala는 주로 18kg 사이즈로 거래가 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와 같은 남아메리카 지역을 비롯하여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 가장 다양한 지역에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제품은 뉴질랜드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산으로, 모두 킬로그램당 0.80파운드 이상임
-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산은 비슷하게 0.75-0.80파운드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칠레산이 0.64파운드로 가장 저렴함
- 가장 고가인 뉴질랜드산과 저가인 칠레산 제품의 가격은 0.20파운드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됨

〈 Royal Gala 원산지별 가격 비교 〉

원산지	중량	가 격(페니)	kg당 가격	가 격(파운드)
Argentina	18kg	1,400	78	0.78
Brazil	18kg	1,388	77	0.77
Chile	18kg	1,150	64	0.64
China	18kg	1,350	75	0.75
New Zealand	18kg	1,500	83	0.83
South Africa	18kg	1,450	81	0.81

자료 : www.freshinfo.com

● Granny Smith(사과)

- Granny Smith는 주로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인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유럽 내에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수입되고 있음
- 18킬로그램 사이즈에서는 아르헨티나와 칠레 제품이 0.80파운드 이상으로 고가에 속한 반면 우루과이 제품은 0.70파운드 미만으로 가장 저가로 나타남

- 13킬로그램 사이즈에서는 프랑스산이 1파운드 이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칠레와 이탈리아산은 각각 0.92파운드와 0.90파운드로 조사됨

〈 Granny Smith 원산지별 가격 비교 〉

원산지	중량	가 격(페니)	kg당 가격	가 격(파운드)
Argentina	18kg	1,500	83	0.83
Chile	13kg	1,200	92	0.92
Chile	18kg	1,450	81	0.81
France	13kg	1,400	108	1.08
Italy	13kg	1,175	90	0.90
South Africa	18kg	1,400	78	0.78
Uruguay	18kg	1,235	69	0.69

자료 : www.freshinfo.com

● Conference(배)

- 배의 경우 일반 슈퍼마켓에서 여러 가지 품종을 판매하기보다는 여러 원산지에서 수입된 한 가지 품종을 판매하고 있어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품종인 conference를 중심으로 원산지별 가격만 비교함
- conference는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으며 벨기에산이 네덜란드산 제품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0.05파운드)에 거래되고 있음

〈 Conference 원산지별 가격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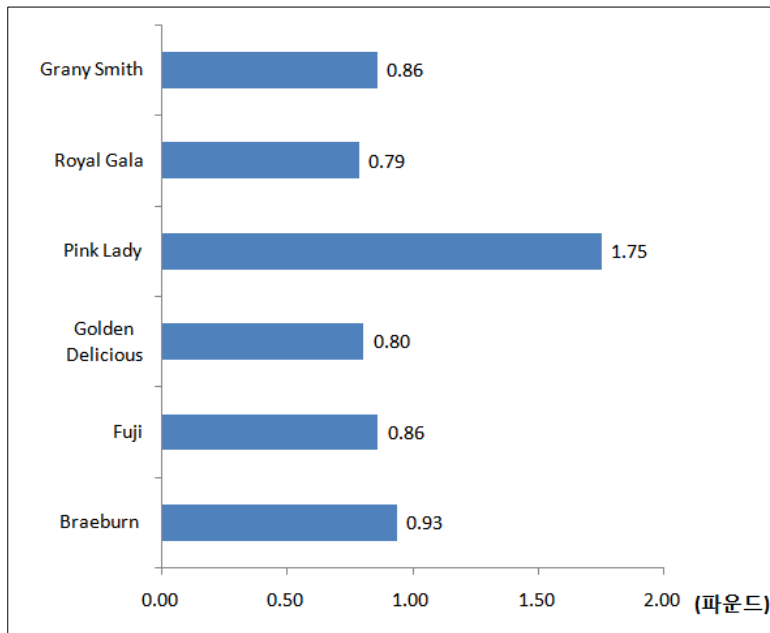
원산지	중량	가 격 (페니)	kg당 가격	가 격 (파운드)
벨기에	12kg	986	82	0.82
네덜란드	12kg	920	77	0.77

자료 : www.freshinfo.com

☐ 품종별 가격 비교

- 사과 품종별 평균 거래 가격을 비교해 보면, Pink Lady가 1.75파운드로 가장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과 품종별 가격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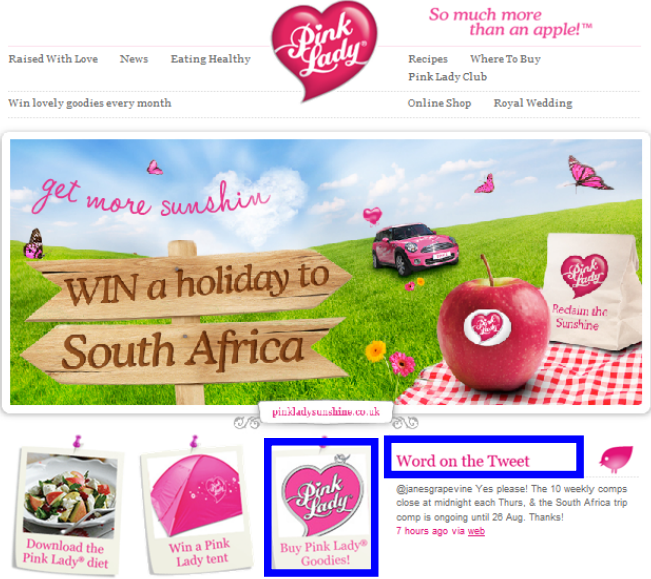


자료 : www.freshinfo.com

- 다음으로 Braeburn(0.93 파운드), Fuji 및 Granny Smith(0.86 파운드), Golden Delicious(0.80 파운드), Royal Gala(0.79 파운드) 순으로 조사됨
- 가장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Pink Lady와 가장 저가인 Royal Gala의 가격 차이는 무려 2.2배에 달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고가인 Braeburn과도 0.82파운드가 차이남
- 이와 같이 Pink Lady가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제품의 특징 측면에서는 영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단맛이 강하고 단단하면서도 싱싱함이 오래가고, 색이 고른 진한 분홍빛을 띠고 있어 상품가치가 높아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제품의 뛰어난 상품가치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Pink Lady 개별 사과에 'Pink Lady' 로고 스티커 부착, 식품과 관련된 갖가지 이벤트 및 전시회 참가, 온라인 상의 경품 이벤트 등을 통한 일관성 있는 홍보 활동 등 뛰어난 마케팅이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데 더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 Pink Lady 마케팅 활동 예시 >

스티커 포장	온라인 마케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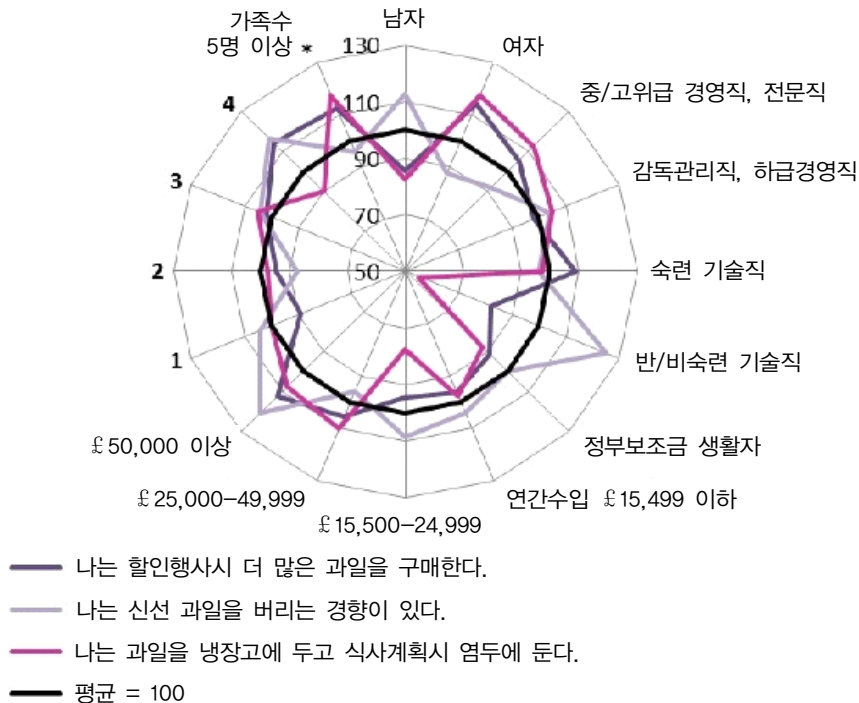
- 동일 품종 내에서 원산지별 가격과 품종별 가격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원산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으나 동일 원산지라도 품종별로 가격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품종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음

4. 소비동향

■ 주요 구매층

- 세계적인 조사기관인 민텔이 실시한 영국 국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과일 구매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국의 과일 구매층을 살펴보고자 함
- 민텔은 과일 구매층을 성별, 가족 인원수, 소득 수준, 사회경제적 위치의 총 4개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함
- 그 결과 우선 성별을 바탕으로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과일을 많이 구매하고 또한 섭취도 많이 하는 반면, 남자는 구매를 하더라도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과일 구매층 분석 〉



자료 : 민텔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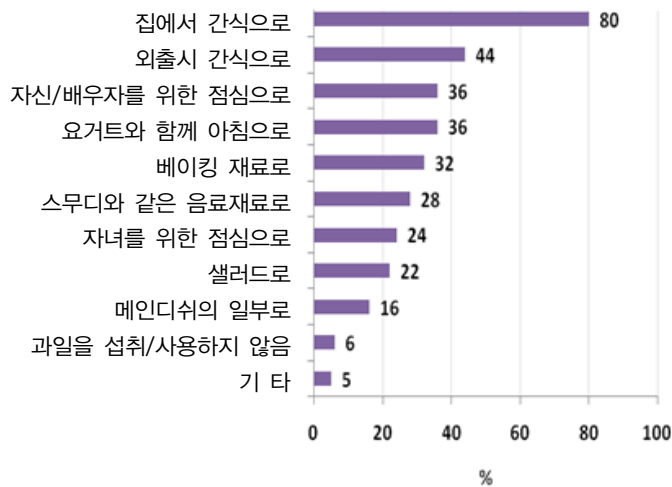
- 가족 인원수에 있어서는 식구가 많을수록 더 많은 과일을 구매하고 또한 과일 가격에 민감하여 과일 할인 행사가 과일 구매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반면 가족 인원수가 많을수록 과일을 버리는 경향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과일 구매층을 분석해 보면,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과일 구매를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연간 소득 25,000파운드에서 49,999파운드의 중산층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과일을 식사 계획 때 염두에 두고 섭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산층과 고소득계층에서는 이러한 과일 구매 및 섭취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저소득계층은 매우 다른 성향을 나타냄
- 사회경제적 위치를 기준으로 보면, 반/비숙련 기술직에서는 신선과일을 구입했다라도 버리게 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반면 중/고위급 경영직, 전문직에서는 그 비율이 평균보다 낮았음
- 또한 반/비숙련 기술직에서는 과일을 식사계획 시 염두에 둔다는 비율이 평균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고위급 경영직, 전문직에서는 할인 행사 시 더 많은 과일을 산다는 것과 과일을 식사계획 시 염두에 둔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와 같은 소비자들의 성별, 가족 인원수, 소득 수준, 그리고 사회경제적 위치를 바탕으로 과일의 주 구매층을 분석해 봤을 때, 주로 자녀가 있는 4인 이상의 가족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고위급 경영직 또는 전문직에서 일하고 있는 중산층이 가장 많은 과일을 구매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대형 슈퍼마켓 체인 또는 유통채널을 선정할 때 이와 같은 과일 주요 구매층이 자주 이용하는 곳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소비형태

- 민텔에서 조사한 영국 소비자들의 과일 소비형태를 보면, 유럽 소비자들은 한국 소비자들의 과일 소비형태와 비교했을 때 과일을 소비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음

- 영국 소비자들이 과일을 집 또는 외출 시 간식으로 섭취한다는 비율이 각각 80%와 44%로 월등히 높았음
- 그러나 아래 그림을 보면 간식으로 과일을 섭취하는 것 외의 과일 소비형태가 다양함을 알 수 있음

〈 과일 소비형태 〉



자료 : 민텔 2011

- 과일을 점심 또는 아침으로 섭취하는 경우도 있고, 요거트, 베이킹, 샐러드 등의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20% 이상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과일 소비형태가 다양한 것은 향후 과일 소비 시장이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암시하여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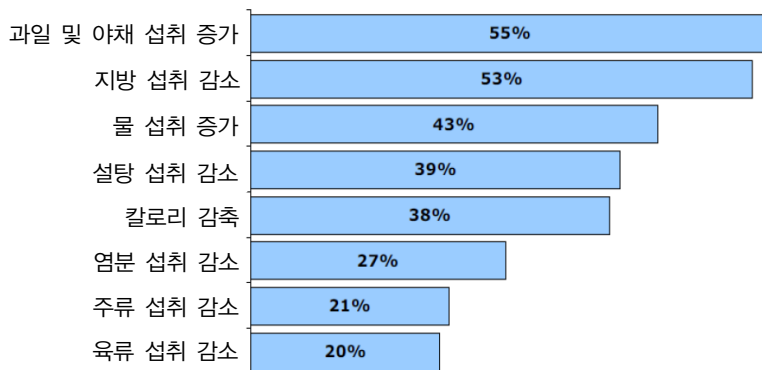
■ 과일에 대한 태도

- 영국 정부가 건강한 식단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벌이면서 소비자들 중에 건강한 식단을 위해 더 많은 과일과 야채를 섭취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후레쉬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건강한 식단을 위해 최근 습관을 바꾼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55%의 응답자가 '더 많은 과일과 야채

를 섭취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는 '지방 섭취를 감소했다'가 53%로 나타남

- 이는 소비자들이 건강과 과일 및 야채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고 있다라는 증거로, 소비자 자신의 건강을 위해 향후 과일 및 야채 섭취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아 과일 시장이 더욱 확장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 건강을 위한 식습관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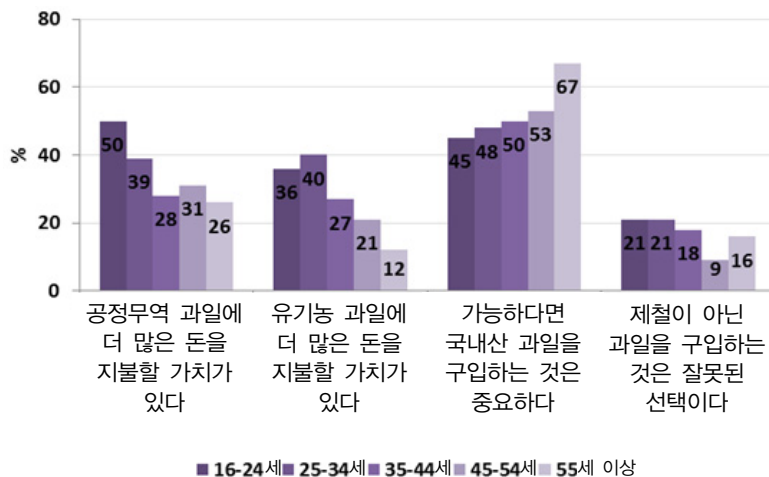


자료 : 세계 딸기 회의 2010

- 한편, 민텔이 영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일에 대한 가치 조사 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이 공정무역(fair trade) 과일, 유기농 과일, 자국산 과일, 제철 과일 등에 어떠한 가치를 매기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음
- 윤리적으로 공정무역을 실시해야 한다는 캠페인이 최근 몇 년간 영국에서 이슈가 되면서 16-24세의 젊은 연령층 사이에서는 50%에 이르는 응답자들이 공정무역 과일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대답한 반면 55세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약 1/4만이 그렇다고 응답함
- 유기농 과일에 대해서도 비교적 사회 이슈 또는 유행에 민감한 35세 미만 연령층에서는 유기농 과일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35세 이상에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30% 이하로 저조함
- 2010년 유기농 과일이 영양학적으로 일반 과일과 다르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유기농 과일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낮게 나온 것으로 추정됨

- 자국산 과일에 대한 선호도는 전 연령대에서 응답률이 최소 45%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자국산 과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노년층의 응답률은 67%에 이릅니다
- 이와 같은 영국의 자국산 과일 선호도는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서도 나타나 자국산 과일 패키지에 국기를 그려 넣는 등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반면 과일의 제철 시기에 대해서는 전 연령대에 걸쳐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과일에 대한 가치관 조사 〉



자료 : 민텔 2011

- ‘제철이 아닌 과일을 구입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라는 문장에 21%의 소비자들만 동의했고 45세-54세의 중년층에서는 9%의 응답자만이 동의함
- 위의 과일에 대한 영국 소비자들의 가치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판단해 보았을 때 영국 소비자들의 경우, 과일이 유기농법으로 생산되었는지 또는 공정무역으로 수입된 것인지 보다는 자국산인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5. 수입동향

■ 전체 수입규모

- 2010년 영국이 전 세계에서 수입한 과일의 규모는 금액을 기준으로 약 49억 달러, 한화 약 5.3조 원, 물량으로는 3.6백만 톤으로 집계됨
- 이는 2009년과 비교하여 각각 4.2%, 2.0% 증가한 수치임

〈 국별 과일 수입규모 〉

(단위 : 천 달러, 톤, %)

국 가	2008년		2009년		2010년		2009-10년 성장률	
	수입금액	수입물량	수입금액	수입물량	수입금액	수입물량	수입금액	수입물량
전 체	5,520,515	3,724,081	4,676,842	3,495,305	4,871,815	3,565,770	4.2	2.0
스페인	840,559	477,221	688,102	448,660	708,274	446,033	2.9	-0.6
남아프리카 공화국	571,628	398,328	465,057	351,198	481,821	325,081	3.6	-7.4
네덜란드	386,347	229,689	305,905	179,772	342,858	228,343	12.1	27.0
코스타리카	235,293	307,658	249,692	321,717	271,471	360,947	8.7	12.2
프랑스	304,265	186,356	233,144	161,708	265,784	198,297	14.0	22.6
칠 레	328,542	150,577	239,777	131,433	253,838	128,663	5.9	-2.1
미 국	275,914	106,143	226,964	93,622	224,459	78,237	-1.1	-16.4
터 키	196,244	96,498	196,853	109,718	221,655	105,808	12.6	-3.6
이탈리아	290,919	119,474	220,069	115,472	207,746	102,875	-5.6	-10.9
도미니카 공화국	115,401	128,638	120,799	132,395	166,577	193,129	37.9	45.9
콜롬비아	183,028	258,178	171,960	231,854	160,141	213,119	-6.9	-8.1
브라질	185,277	148,673	163,337	134,691	158,463	122,730	-3.0	-8.9
독 일	140,441	69,746	118,868	66,389	121,281	73,113	2.0	10.1
이집트	85,226	68,178	110,577	78,819	106,935	83,692	-3.3	6.2
벨기에	146,170	104,565	90,419	61,724	91,530	63,937	1.2	3.6
아르헨티나	56,868	32,651	54,690	39,131	68,766	31,825	25.7	-18.7
그리스	87,001	41,048	70,389	33,485	67,212	37,362	-4.5	11.6
아일랜드	41,861	23,825	34,960	22,277	58,445	46,345	67.2	108.0
인 도	61,765	23,527	58,173	22,261	57,244	22,409	-1.6	0.7
벨리즈	46,550	58,498	53,231	62,970	56,979	66,274	7.0	5.2
한 국	56	24	102	59	75	53	-26.5	-10.2

자료 : GTA

- 상위 20개 국가에는 스페인, 네덜란드 및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뿐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들, 칠레, 미국, 콜롬비아와 같은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들이 있음
- 이 중 아시아 대륙에 속하는 국가로는 유일하게 인도가 포함되어 있으나 동남아시아 또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수입규모 7만 5천 달러로, 98위에 랭크됨
- 수입규모가 가장 큰 5개 국가를 중심으로 최근 3년간의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2008년 스페인산 과일은 8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영국에 수입되었으며 2009년에는 18%가 감소하여 7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2010년에는 다시 수입규모가 3% 가량 소폭으로 증가하여 7억 달러를 조금 넘김
- 그러나 수입물량 측면에서는 2008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수입물량의 감소 추세는 수입규모 2위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나타나 전년대비 수입금액은 3.6% 증가한 반면 수입물량은 7.4% 감소함
- 반면, 3-5위를 차지하고 있는 네덜란드, 코스타리카, 프랑스는 2009년 대비 금액과 물량 모두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네덜란드산 과일의 경우는 아직 2008년 수입규모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나 코스타리카는 2008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하였고 프랑스는 수입물량 측면에서만 회복한 것으로 나타남

■ 아시아 제품 수입규모

-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아시아 과일 수입규모 순위를 보면, 베트남이 4,550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중국이 4,530만 달러로 2위를 차지함
- 금액을 기준으로 중국이 2위이나 물량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산 과일은 2만 2천 톤이 수입되고, 베트남산 과일은 8천 톤이 수입됨
- 중국산 과일이 베트남산 과일에 비해 거의 3배에 가까운 더 많은 양이 영국으로 수입됐으나 금액에서는 베트남산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산 과일의 수입가격이 매우 낮음을 시사하고 있음

- 상위 3개국의 과일은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수입이 증가하여 수입금액이 두 자리 이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의 과일은 대부분 수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아시아 국가별 과일 수입규모 현황 〉

(단위 : 천 달러, 톤, %)

국가	2008년		2009년		2010년		2009-10년 성장률	
	수입금액	수입물량	수입금액	수입물량	수입금액	수입물량	수입금액	수입물량
베트남	51,579	10,003	36,168	7,728	45,505	8,010	25.8	3.6
중 국	62,830	25,929	37,155	18,958	45,319	22,080	22.0	16.5
필리핀	15,437	7,747	10,438	7,206	11,800	7,567	13.0	5.0
인도네시아	10,114	6,083	9,727	8,207	8,604	5,856	-11.5	-28.6
태 국	9,696	4,287	7,039	3,325	5,402	2,690	-23.3	-19.1
말레이시아	386	98	281	68	230	51	-18.1	-25.0
싱가포르	766	273	301	138	198	57	-34.2	-58.7
홍 콩	165	42	80	42	81	54	1.3	28.6
한 국	56	24	102	59	75	53	-26.5	-10.2
대 만	163	58	47	21	32	7	-31.9	-66.7
일 본	83	12	46	1	27	2	-41.3	100.0

자료 : GTA

■ 품목별 수입동향

- GTA를 통해 세부 과일 품목별 수입규모를 검색한 결과, 금액을 기준으로 신선 또는 건조 포도의 수입규모가 2010년 8억 4천여 달러로 가장 크고, 다음은 바나나(756백만 달러), 감귤류(660백만 달러), 사과 및 배(654백만 달러) 순으로 나타남
- 포도의 수입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영국 내 포도 생산이 위축되고 있는 것과 칠레산의 수입규모가 큰 것과 깊은 관련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008년 이후의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포도와 감귤, 기타 신선과일의 경우는 2008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2009년에 크게 감소 이후 2010년에 4-10% 가량 증가했으나 아직 2008년의 수입규모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 사과와 배는 수입이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 영국의 사과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2005년 이후 증가함에 따라 수입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반면, 바나나의 경우는 영국 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데다 먹기가 간편하여 간식, 점심 후의 디저트로 선호되면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량이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과일 품목별 수입동향 〉

(단위 : 천 달러, 톤, %)

HS 코드	품목	2008년		2009년		2010년		2009-10년 성장률	
		수입 금액	수입 물량	수입 금액	수입 물량	수입 금액	수입 물량	수입 금액	수입 물량
0801	코코넛, 브라질넛, 캐슈넛	169,170	47,913	138,127	46,619	159,606	43,096	15.6	-7.6
0802	신선 또는 건조 기타 견과류	230,896	73,980	186,058	34,342	242,558	41,127	30.4	19.8
0803	신선 또는 건조 바나나	728,893	991,926	737,301	974,947	756,260	1,012,949	2.6	3.9
0804	신선 또는 건조 대추야자, 무화과, 파인애플, 아보카도, 구아바, 망고	370,821	238,418	328,998	244,894	323,847	254,925	-1.6	4.1
0805	신선 또는 건조 감귤류	744,440	716,260	628,859	672,398	659,581	670,471	4.9	-0.3
0806	신선 또는 건조 포도	894,698	390,473	770,111	361,114	838,242	367,490	8.8	1.8
0807	신선 멜론(수박 포함) 및 파파야	239,467	216,836	195,220	196,149	189,643	203,856	-2.9	3.9
0808	신선 사과 및 배	830,730	620,330	664,444	573,307	654,372	591,362	-1.5	3.1
0809	신선 살구, 체리, 복숭아, 자두	381,484	169,756	285,640	159,470	272,304	138,766	-4.7	-13.0
0810	기타 신선 과일	548,421	133,032	448,405	124,969	474,250	126,077	5.8	0.9
0811	조리 또는 비조리 냉동 과일 및 견과류	162,283	71,026	115,348	56,906	122,251	65,539	6.0	15.2
0812	즉시 섭취 가능한 보존된 과일 및 견과류	13,171	11,000	10,666	9,175	11,615	11,542	8.9	25.8
0813	과일 및 견과류 혼합	202,073	41,825	164,355	38,800	163,638	37,195	-0.4	-4.1
0814	신선, 냉동, 건조 또는 보존된 감귤류 또는 멜론 껍질	3,969	1,308	3,309	2,216	3,649	1,375	10.3	-38.0

자료 : GTA

☐ 품목에 따른 국가별 수입동향

- 영국으로 수입된 적이 있는 한국 과일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과와 배를 비롯하여 감귤류, 포도 등이 있음
- 한국 과일이 수입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주요 원산지 1-3위국과 한국산의 수입규모 및 동향을 살펴보고자 함
- 한국산 과일 중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는 품목은 신선 사과 및 배로, 2010년에 32천 달러 규모가 수입됐으며 신선 또는 건조 감귤류(29천 달러)도 2만 달러 이상의 큰 규모로 수입됨
- 신선 사과 및 배의 경우, 주로 프랑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신선 또는 감귤류는 스페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신선 또는 건조 기타 견과류는 미국, 이탈리아, 네덜란드에서 수입되고 있음

〈 품목에 따른 국가별 수입동향 〉

(단위 : 천 달러, 톤,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수입 금액	수입 물량	수입 금액	수입 물량	수입 금액	수입 물량
신선 또는 건조 기타 견과류 (0802)	미 국	75,241	13,699	68,633	13,756	83,873	14,146
	이탈리아	38,961	4,868	31,225	3,952	36,232	4,222
	네덜란드	24,732	39,620	13,064	3,441	28,647	6,663
	한 국	3	1	9	2	8	2
신선 또는 건조 감귤류(0805)	스페인	297,035	241,051	256,589	235,607	257,832	222,460
	남아프리카 공화국	150,997	164,176	109,015	133,485	128,284	139,060
	이집트	31,501	45,546	32,845	52,644	37,304	59,689
	한 국	3	3	0	0	29	38
신선 또는 건조 포도(0806)	남아프리카 공화국	157,621	59,296	123,453	52,212	131,950	48,493
	터 키	100,396	53,935	104,041	63,162	131,346	64,679
	칠 레	158,756	68,851	112,188	60,001	116,852	56,011
	한 국	7	1	6	2	2	0

신선 멜론(수박 포함) 및 파 파야(0807)	스페인	77,845	74,853	56,576	67,934	59,855	73,847
	브라질	69,058	70,633	64,384	67,051	55,605	59,777
	네덜란드	13,257	12,109	12,097	12,148	12,734	15,236
	한 국	0	0	16	2	4	0
신선 사과 및 배(0808)	프랑스	169,832	138,436	133,204	121,189	170,789	156,776
	남아프리카 공화국	174,185	139,801	148,053	133,809	127,759	106,435
	네덜란드	97,669	64,739	77,107	60,533	77,621	77,363
	한 국	43	20	25	14	32	13
기타 신선 과일(0810)	스페인	185,786	34,933	150,606	30,876	157,255	31,278
	네덜란드	102,066	19,821	84,338	18,666	81,006	23,681
	칠 레	40,538	12,440	30,257	11,903	35,670	11,432
	한 국	0	0	1	0	0	0
신선, 냉동, 건조 또는 보존 된 감귤류 또는 멜론 껍질 (0814)	네덜란드	1,092	372	1,194	441	1,219	401
	이탈리아	172	120	434	246	806	417
	스페인	1,484	279	576	156	641	160
	한 국	0	0	45	40	0	0

자료 : GTA

* 주 : 괄호 안은 HS CODE임

- 2008년 이후 수입규모 동향을 보면, 감귤의 경우 스페인산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산의 수입은 감소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저렴한 이집트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과 및 배는 대부분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수입가격 비교

- 과일의 수입가격을 국가별 및 품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 2010년 상위 20개국 및 한국의 평균 수입가격은 킬로그램당 1.57달러로, 2008년의 1.69달러보다는 낮으나 2009년과 대비해서는 0.02달러가 상승함
- 킬로그램당 수입가격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무려 2.87달러로 나타났으며, 터키,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인도의 수입가격은 모두 2달러 이상으로 높게 조사됨

〈 국가별 과일 수입가격 현황 〉

(단위 : 달러)

국 가	2008년	2009년	2010년
평 균	1.69	1.55	1.57
스페인	1.76	1.53	1.59
남아프리카 공화국	1.44	1.32	1.48
네덜란드	1.68	1.70	1.50
코스타리카	0.76	0.78	0.75
프랑스	1.63	1.44	1.34
칠 레	2.18	1.82	1.97
미 국	2.60	2.42	2.87
터 키	2.03	1.79	2.09
이탈리아	2.43	1.91	2.02
도미니카 공화국	0.90	0.91	0.86
콜롬비아	0.71	0.74	0.75
브라질	1.25	1.21	1.29
독 일	2.01	1.79	1.66
이집트	1.25	1.40	1.28
벨기에	1.40	1.46	1.43
아르헨티나	1.74	1.40	2.16
그리스	2.12	2.10	1.80
아일랜드	1.76	1.57	1.26
인 도	2.63	2.61	2.55
벨리즈	0.80	0.85	0.86
한 국	2.33	1.73	1.42

자료 : GTA

- 품목별 수입가격을 살펴보면, 신선 또는 건조 기타 견과류(0802)의 킬로그램 당 가격이 5.90달러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과일 및 견과류 혼합(0813) 4.40달러, 기타 신선과일(0810) 3.76달러, 코코넛·브라질넛·캐슈넛(0801) 3.70달러 순으로 조사됨
- 전체적으로 견과류의 킬로그램당 가격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국과 이탈리아산 과일의 수입가격이 높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음

〈 과일 품목별 수입가격 현황 〉

(단위 : 달러)

HS Code	품 목	2008년	2009년	2010년
0801	코코넛, 브라질넛, 캐슈넛	3.53	2.96	3.70
0802	신선 또는 건조 기타 견과류	3.12	5.42	5.90
0803	신선 또는 건조 바나나	0.73	0.76	0.75
0804	신선 또는 건조 대추야자, 무화과, 파인애플, 아보카도, 구아바, 망고	1.56	1.34	1.27
0805	신선 또는 건조 감귤류	1.04	0.94	0.98
0806	신선 또는 건조 포도	2.29	2.13	2.28
0807	신선 멜론 (수박 포함) 및 파파야	1.10	1.00	0.93
0808	신선 사과 및 배	1.34	1.16	1.11
0809	신선 살구, 체리, 복숭아, 자두	2.25	1.79	1.96
0810	기타 신선 과일	4.12	3.59	3.76
0811	조리 또는 비조리 냉동 과일 및 견과류	2.28	2.03	1.87
0812	즉시 섭취 가능한 보존된 과일 및 견과류	1.20	1.16	1.01
0813	과일 및 견과류 혼합	4.83	4.24	4.40
0814	신선, 냉동, 건조 또는 보존된 감귤류 또는 멜론 껍질	3.03	1.49	2.65
평 균		2.32	2.14	2.33

자료 : GTA

- 반대로 수입가격이 가장 낮은 품목은 신선 또는 건조 바나나로 0.75달러로 나타났으며 신선 멜로(수박 포함) 및 파파야와 신선 또는 건조 감귤류도 각각 0.93달러, 0.98달러로 킬로그램당 가격이 1달러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영국으로 많이 수입되고 있는 과일 중 하나인 신선 사과 및 배의 수입 가격은 1.11달러로, 전체 평균 수입가격인 2.33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위의 자료는 수입 물량이 아닌 견과류와 같은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출 확대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한국산 제품이 많이 수입되고 있는 신선 또는 건조 감귤류와 사과 및 배를 중심으로 원산지별로 수입가격을 비교해 보면 감귤류의 경우, 전체 평균이 0.98달러, 스페인산 제품이 1.16달러로 가장 높은 반면, 이집트산 감귤류가 0.62달러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 한국산은 0.76달러로 전체 평균보다 낮아 가격이 수출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사과와 배에서는 한국산 수입가격이 2.46달러로, 전체 평균보다 2.2배가 넘고, 프랑스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품보다 거의 1달러 가까이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FTA 체결로 관세 인하 시 수입가격 하락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품목에 따른 국가별 수입가격 비교 〉

(단위 : 달러)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신선 또는 건조 감귤류	스페인	1.23	1.09	1.16
	남아프리카 공화국	0.92	0.82	0.92
	이집트	0.69	0.62	0.62
	한 국	1.00	-	0.76
	전 체	1.04	0.94	0.98
신선 사과 및 배	프랑스	1.23	1.10	1.09
	남아프리카 공화국	1.25	1.11	1.20
	네덜란드	1.51	1.27	1.00
	한 국	2.15	1.79	2.46
	전 체	1.34	1.16	1.11

자료 : GTA

6. 통관 및 수입검사

▣ 과일 제품의 통관 거부 유형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유럽 내 과일제품의 통관거부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영국으로의 과일 수입 과정에서 중요한 관련 규정 등을 살펴보고자 함
- 3년간 유럽 긴급 경고 시스템 RASFF에 통관이 거부된 것으로 등록된 과일 제품 사례는 총 547건이며, Aflatoxin과 Ochratoxin과 같은 독소의 검출이 224건으로 거의 절반에 달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 다음으로는 농약 검출과 중금속 검출로 인한 통관 거부가 각각 86건과 74건으로 50건 이상, 곰팡이 발생(38건), 곤충발견(33건), 제품 부패(32건) 순으로 통관 거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8-10년 과일제품 통관거부 유형 및 건수 〉

통관거부 유형	적발건수	비 고
독소 검출	224	Aflatoxin(199), Ochratoxin(19), Salmonella(6)
중금속 검출	74	tin, cadmum, sulphur
농약 검출	66	Methomyl(22), Cyprodinil, Fludioxnil, diazinon(12), methiocarb, ethion(6), omethoate & dimethoate(20), bromopropylate, imazalil, actamiprid
곰팡이 발생	38	-
곤충 발견	33	-
제품 부패	32	-
관능학적 특성변형	16	-
위생상태 불량	16	-
보관상태 불량	11	-
불충분한 라벨링	5	-
기 타	12	패키지 파손, 유전자 변형, 온도조절 실패, 방사선
전 체	527	-

자료 : 유럽 연합 식품 및 사료 긴급 경고 시스템 RASFF 웹사이트

- 따라서 독소, 농약, 중금속과 같은 생산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사항 및 라벨링과 같은 수출 이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봄

☐ 독소 및 중금속 관련 규정

- 유럽연합은 EC 1881/2006을 통해 독성, 중독성을 지니거나 체내에 축적되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독소 및 중금속에 대해 식품 종류별로 최대 허용량을 설정해 놓고 있음
- 따라서 아래 과일별로 독소 및 중금속 최대 허용량을 정리해 놓은 표를 참고해서 이와 같은 이유로 통관거부를 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독소 및 중금속 최대 허용량 >

코드	식품명	최대허용량(mg/kg)		
		B1	B1, B2, G1, G2 합계	M1
2.1	Aflatoxins	B1	B1, B2, G1, G2 합계	M1
2.1.1.	땅콩 및 기타 오일 제조용 씨	8.0	15.0	-
2.1.2.	가공전 아몬드, 피스타치오, 살구	12.0	15.0	-
2.1.3.	가공전 헤이즐넛, 브라질넛	8.0	15.0	-
2.1.4.	가공전 기타 견과류	5.0	10.0	-
2.1.5.	땅콩 및 일반 섭취용 기타 오일 제조용 씨	2.0	4.0	-
2.1.6.	즉시 섭취 가능한 아몬드, 피스타치오, 살구	8.0	10.0	-
2.1.7.	즉시 섭취 가능한 헤이즐넛, 브라질넛	5.0	10.0	-
2.1.8.	즉시 섭취 가능한 기타 견과류	2.0	4.0	-
2.1.9.	가공전 건조 과일	5.0	10.0	-
2.1.10.	즉시 섭취 가능한 건조 과일	2.0	4.0	-
3.1	납	Maximum levels (mg/kg wet weight)		
3.1.12	과일(베리 및 작은 과일 제외)	0.10		
3.1.13	베리 및 작은 과일	0.20		
3.2	카드뮴			
3.2.15	야채 및 과일	0,050		
3.4	주석			
3.4.1.	캔에 든 식품(음료수 제외)	200,0		

자료 : http://ec.europa.eu/food/food/chemicalsafety/contaminants/index_en.htm

■ FTA 체결 전후 관세 비교

- 과일(의 경우, 과일 품목에 따라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 시기에 차이가 있음
- 품목별로 관세 철폐 시기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 배가 관세 즉시 철폐 혜택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관세 축소 적용 후, 철폐되기 때문에 배 외에는 즉각적인 관세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움

〈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 시기 〉

CN코드	품목명	철폐 시기
08082050	신선 배	즉시 철폐
08052010	신선 또는 건조 클레멘타인 (clementines)	FTA 체결 15년이 되는 첫날
08052050	신선 또는 건조 만다린 (mandarins)	FTA 체결 15년이 되는 첫날
08052070	신선 또는 건조 탠저린 (tangerines)	FTA 체결 15년이 되는 첫날
08061010	신선 테이블 포도 (table grapes)	FTA 체결 17년이 되는 첫날
08081080	신선 사과 (사이다용 사과 제외)	FTA 체결 10/20년이 되는 첫날
08091000	신선 살구 (apricots)	FTA 체결 7년이 되는 첫날
08093010	신선 승도 복숭아 (nectarines)	FTA 체결 10년이 되는 첫날
08093090	신선 복숭아 (peaches)	FTA 체결 10년이 되는 첫날
08094005	신선 자두 (plums)	FTA 체결 10년이 되는 첫날



자료 : 유럽연합

* 주 : 후지 사과만 FTA 체결 20년이 되는 첫날 관세 철폐 적용

- 한국 배가 상당히 고가에 수입되고 있던 것을 감안하면 한국산 배의 무관세 적용은 수입가격 하락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원가 자체가 높아 가격 하락 폭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라벨링

- 일반 제품의 라벨 의무 표기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제품 이름
 - 성분 및 성분 함량 또는 성분 카테고리 : 함량이 높은 순으로 표기, 성분 카테고리 및 특정 성분 순으로 표기
 - 알레르기 유발 성분
 - 유효기간 및 보관방법
 - 제조회사 이름 및 주소 또는 유럽 연합 내 수입/판매업자
 - 순 중량
 - 영양성분
 - 원산지
- 신선 과일의 경우, 위의 의무표기 사항 중 성분 및 성분함량은 예외적으로 표기하지 않아도 됨
- 영국의 일반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서 판매 중인 과일의 라벨링 구성을 보면 아래와 같음

구분	상 품	설 명
앞 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 영양정보 : 일반적인 사과의 칼로리, 설탕, 지방, 포화지방, 염분 함량 - 제품의 평균 크기 - 원산지 - 유통기한
뒷 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관방법 - 영양성분 : 100g당 함량, 사과 1개당 평균 함량, 1일 권장량 대비 함유율

7. 한국산 수출 확대 방안

■ 수출 과일의 다양화

- 현재 영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한국산 과일은 사과 및 배, 감귤류, 포도에 한정되어 있음
- 영국에서 생산량이 적거나 생산하지 않아 수입의존도가 높은 과일 및 견과류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제품을 발굴하여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 또는 영국의 기존 과일과 다른 외관과 맛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참외, 배, 유자 등을 중심으로 수출을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음

■ 대형 중간 공급업체 공략

- 기존 한국산 과일들은 대부분 한국계 수입업체들을 통해 수입되고 있으나 수입물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슈퍼마켓 체인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대형 중간 공급업체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음
- 대형 중간 공급업체들은 제품을 수입하여 2개 이상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어 대형 중간 공급업체에 직접 제품을 수출하여 한국 과일을 판매하는 소매점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함

■ 현지 구매 상담회 개최

- 한국산 사과와 배 등에 대해서 알고 있는 수입업체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알고 있는 업체들도 영국 내 수요의 불확실성으로 대량 구매를 꺼리고 있음
- 따라서 런던 인근에 위치한 New Covent Garden과 New Spitalfields Market 등과 같은 청과물 도매시장에 위치한 대형 수입업체들을 중심으로 현지 구매 상담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 구매 상담회를 통해 한국산 과일을 실제 보고 먹어보는 한편, 상담회에서 거래 상담은 물론 한국산 과일의 구매를 원하는 업체들을 도매시장별로 모아 공동구매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음

■ 유통업체와 연계한 홍보

- 현재 영국에 한국 제품이 입점해 있거나 입점할 가능성이 있는 대형 슈퍼마켓 체인업체들을 중심으로 1년 중 일정 기간만 한국 과일을 수입, 판매함과 동시에 시식 홍보를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임

■ 박람회를 통한 수입업체 발굴

- 수입 및 공급업체를 발굴할 수 있는 영국의 식음료 관련 박람회로는 작수해 3월에 Birmingham NEC에서 개최되는 Food & Drink Expo와 홀수해 3월에 London ExCel에서 개최되는 International Food Exhibition이 있음
- 아직 한국산 과일에 대해서 모르는 업체들이 많아 박람회를 통해 바이어들이 직접 제품을 보고 맛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함

구분	Food & Drink Expo	International Food Exhibition
개최시기	작수해 3월 (2012년 3월 25-27일)	홀수해 3월 (2013년 3월 17-20일)
장 소	Birmingham NEC	London ExCel
웹사이트	www.foodanddrinkexpo.co.uk	www.ife.co.uk

■ 관련 산업잡지를 통한 홍보

-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 수입 또는 공급, 생산업체들은 관련 산업잡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품의 우수성 등을 홍보하고 있음
- 유럽의 기존 과일과 다른 특징을 띠고 있는 과일들의 경우는 이러한 잡지에 광고를 함으로써 관심 있는 수입업체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또한 지속적으로 한국 과일의 생산동향 또는 수출동향 등을 기사화함으로써 바이어들에게 한국산 과일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음
- 신선 과일을 전문으로 하는 잡지로는 Freshinfo에서 발행하는 FPJ가 있음 (www.freshinfo.com)

〈 FPJ에 게재된 사과 광고 예시 〉



미국 사과의 광고



Pink Lady 사과의 광고

8.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관련 협회 및 정부기관	
Defra(영국 농식품부에 해당) Nobel House 17 Smith Square London SW1P 3JR Tel : +44 (0)207 238 6951 www.defra.gov.uk defra.helpline@defra.gsi.gov.uk	Food Standard Agency(식품 표준청) Aviation House 125 Kingsway London WC2B 6NH Tel : +44 (0)20 7276 8000 www.food.gov.uk helpline@foodstandards.gsi.gov.uk
Freshfel Europe (유럽 신선 농산물 협회) Avenue De Broqueville 272 Bte 4 1200 Brussels, Belgium Tel : 003202 777 1580 www.freshfel.org info@freshfel.org	Association Pink Lady Europe Tel : +33 490 119 180 Fax : +33 432 811 331 www.pinkladyeurope.com contact@pinkladyeurope.com

<input type="checkbox"/> 주요 수입/공급업체	
Worldwide Fruit Ltd. Apple Way, Wardentree Lane, Pinchbeck, SPALDING, Lincolnshire PE11 3BB Tel : +44 (0) 1775 717000 Fax : +44 (0) 1775 717001 www.worldwidefruit.co.uk steve.maxwell@worldwidefruit.co.uk	Chingford Thames House Thames Road, Crayford Kent, DA1 4QP Tel : +44 (0)1322 429222 Fax : +44 (0)1322 429223 www.agthames.co.uk philw@agthames.co.uk
A1 Veg Western Int Market, Hayes Rd, Southall, UB2 5XD Tel : +44 208 848 0700 www.aspwebdesigner.com webmaster@aspwebdesigner.com	DG Fruit Bourne House 475 Godstone Road Whyteleafe, Surrey, CR3 0BL Tel : +44 (0)1883 621 060 Fax : +44 (0)1883 621 061 info@dgfruit.co.uk
JW Brokers Ravenshaw St Georges Road, Bromley, Kent, United Kingdom Tel : +44 (0)208 467 0266 Fax : +44 (0)208 467 3097 jwbrowsers@aol.com (담당자 : John Watts) * 비고 : 90년대에 한국산 과일을 주로 수 입했으며 가격만 맞는다면 다시 한국산 과일의 수입을 재개하고 싶어함	

독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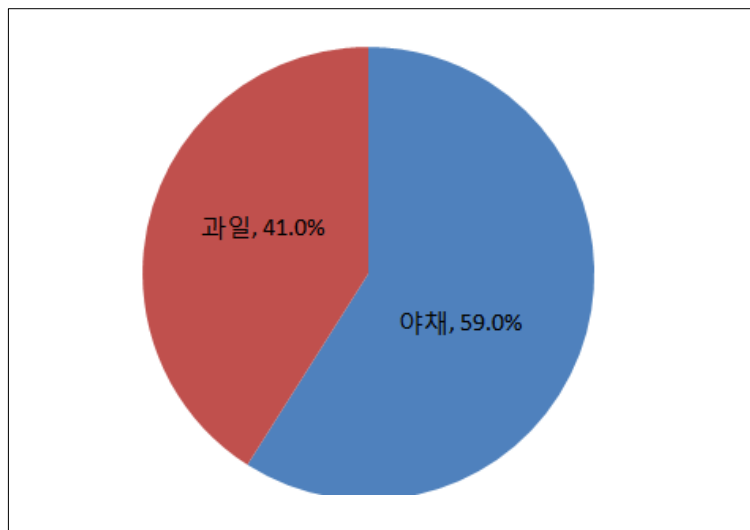
1. 시장개요	49
2. 생산동향	55
3. 유통동향	60
4. 수입동향	64
5. 통관 및 수입 검사	74
6. 한국산 수출확대 방안	78

1. 시장개요

■ 시장규모

-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독일 신선 과일의 시장규모 자료 중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자료는 데이터모니터에서 발간한 통계치가 유일하나 신선 야채 및 과일을 통합하고 있음
- 그러나 야채 및 과일의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에 대해서 야채는 59%, 과일은 41%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 독일 신선 야채 및 과일 시장 점유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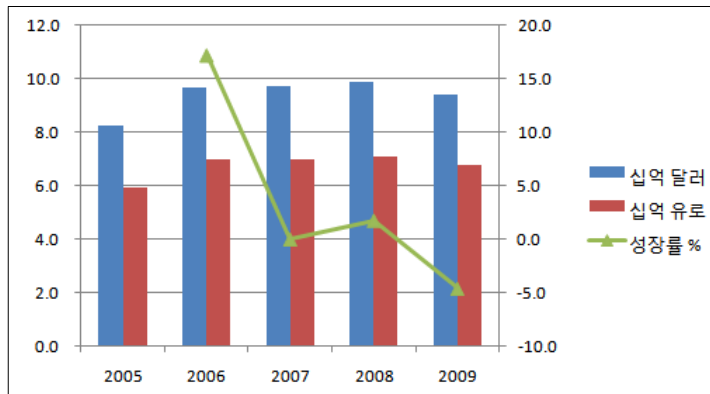


자료 : 데이터 모니터 2010

-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신선 과일의 시장규모를 추정해 보면, 2009년을 기준으로 94억 달러, 약 10조 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 매출액 기준 신선 과일 시장규모 동향 〉

구 분	야채 및 과일			과 일		
	십억 달러	십억 유로	성장률(%)	십억 달러	십억 유로	성장률(%)
2005년	20.1	14.5		8.2	5.9	
2006년	23.6	17.0	17.1	9.7	7.0	17.2
2007년	23.7	17.0	0.4	9.7	7.0	0.0
2008년	24.1	17.3	1.6	9.9	7.1	1.8
2009년	22.9	16.5	-4.8	9.4	6.8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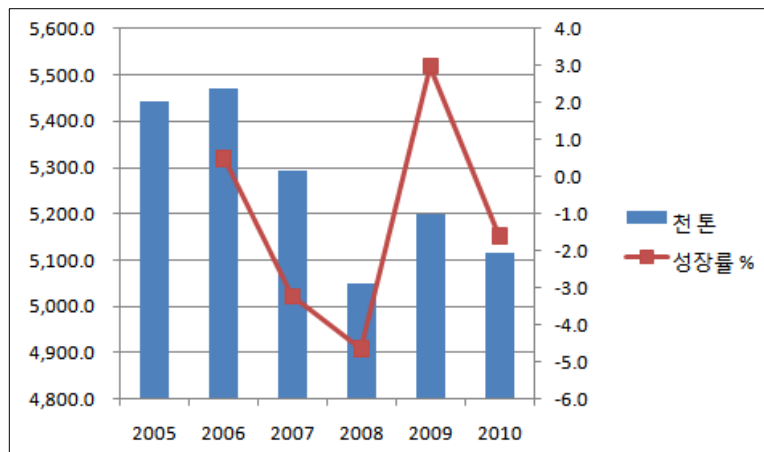
자료 : 데이터 모니터 2010

-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성장률 자체는 크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어 2005년 82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99억 달러까지 성장하였으나 2009년에는 4.6%의 상대적으로 큰 감소폭으로 시장이 축소되어 94억 달러를 기록함
- 그러나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성장률을 보면 14.6%로 나타나 5년간 전반적으로는 신선 과일 시장이 크게 성장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유로모니터에서 발표한 물량을 기준으로 한 신선 과일 시장규모는 2010년 기준 5.1백만 톤으로 집계됨
- 2005년 이후의 시장규모 동향을 살펴보면 2005년-06년에는 0.5% 증가했다가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3.2%, 4.7%가 감소했으며 2009년에는 3% 증가, 2010년에는 다시 1.6% 감소함

〈 물량 기준 신선 과일 시장규모 〉

구 분	천 톤	성장률(%)
2005년	5,444.4	
2006년	5,470.9	0.5
2007년	5,294.4	-3.2
2008년	5,048.2	-4.7
2009년	5,198.9	3.0
2010년	5,116.1	-1.6

자료 : 유로모니터 2011



자료 : 유로모니터 2011

- 이와 같이 신선 과일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디스카운터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독일의 유통구조 특성을 고려했을 때 과일의 가격이 수요 또는 시장규모의 축소 및 확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오히려 독일 내 과일 수확량 및 수출입량 등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시장규모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유로모니터는 분석하고 있음

과일 종류별 시장규모

- 독일의 과일 종류별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사과가 약 1.4백만 톤으로 월등히 크고, 다음으로 오렌지/탄제린/만다린 0.9백만 톤, 바나나 0.8백만 톤, 기타 과일 0.7백만 톤 순으로 나타남
- 주요 과일의 2005-10년 시장규모 동향을 보면, 시장규모 1위인 사과는 2006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2위인 오렌지/탄제린/만다린과의 차이가 여전히 약 0.5백만 톤으로 상당히 큼
- 사과는 2006년에 최근 6년 중 최대치인 1,451천 톤을 기록한 이후 연간 -4%에서 -1%씩 감소하며 2009년에는 최저치인 1,338천 톤을 기록함
- 이후 2010년에는 약 2% 상승한 1,360.4천 톤으로 집계되었으나 2005-10년 전체 성장률은 -4.1%, 연평균 성장률은 -0.8%로 분석됨

< 과일 종류별 시장규모 동향 >

(단위 : 천 톤)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사과	1,419.0	1,450.9	1,411.7	1,397.7	1,338.3	1,360.4
바나나	585.0	880.4	889.0	912.6	828.3	800.7
체리	107.3	82.4	90.6	82.2	86.1	83.2
크랜베리/블루베리	7.0	7.0	7.0	7.0	7.1	7.2
자몽/포멜로(pomelo)	45.9	49.5	49.4	46.9	46.7	45.8
포도	288.8	296.8	255.2	238.4	205.0	235.0
레몬/라임	123.7	123.6	123.5	115.1	114.8	114.4
오렌지/탄제린/만다린	899.3	806.2	798.5	846.8	878.4	894.9
복숭아/승도 복숭아	247.5	271.2	235.5	247.0	283.3	300.7
배/마르멜로(quinces)	156.3	171.8	205.8	171.3	165.7	167.5
파인애플	92.7	115.8	127.2	139.8	149.2	144.2
플럼/오얏(plums/sloes)	90.8	84.4	82.3	74.0	65.6	65.4
딸기	198.0	206.1	197.6	189.1	224.4	217.0
기타 과일	910.2	924.7	821.3	580.3	806.0	679.9
전체	5,444.4	5,470.9	5,294.4	5,048.2	5,198.9	5,116.1

자료 : 유로모니터

- 시장규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오렌지/탄제린/만다린의 시장규모는 2010년 90만 톤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오렌지/탄제린/만다린의 경우 2005년에 최근 6년 중 최대치인 90만 톤에 달하였으나 그 이후 연속 2년간 감소하며 2007년에 최저치인 80만 톤을 기록함
-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며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2005년도 기록인 90만 톤을 넘지는 못하고 2005-10년 전체 성장률은 -0.5%를 기록함
- 반면 바나나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은 연평균 18%로 증가하여 2005년 59만 톤에서 2008년 91만 톤으로 성장하였으나 경제불황으로 바나나 수요 및 가격이 큰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이 축소되어 2010년 약 80만 톤을 기록함
- 전반적으로 시장규모가 상승하고 있는 과일로는 크랜베리/블루베리, 복숭아, 파인애플, 배/마르멜로가 있으며,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과일로는 체리, 기타 과일, 레몬/라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과일별 시장 성장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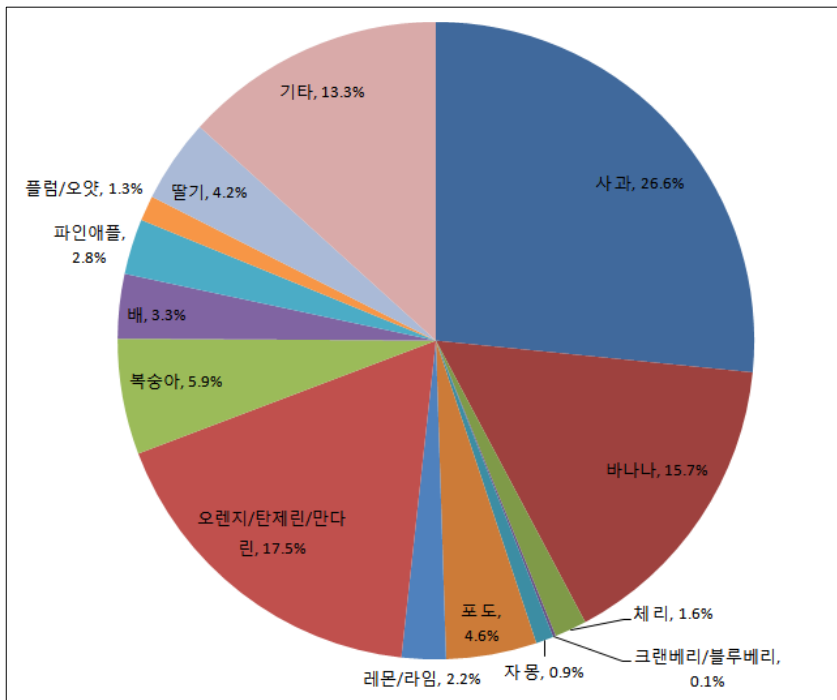
구 분	2009-10년(%)	2005-10년(%)
사 과	1.7	-4.1
바나나	-3.3	36.9
체 리	-3.4	-22.5
크랜베리/블루베리	1.4	2.9
자몽/포멜로(pomelo)	-1.9	-0.2
포 도	14.6	-18.6
레몬/라임	-0.3	-7.5
오렌지/탄제린/만다린	1.9	-0.5
복숭아/승도 복숭아	6.1	21.5
배/마르멜로(quinces)	1.1	7.2
파인애플	-3.4	55.6
플럼/오얏(plums/sloes)	-0.3	-28.0
딸 기	-3.3	9.6
기타 과일	-15.6	-25.3

자료 : 유로모니터

과일별 시장 점유율

- 과일별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아래 차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과, 오렌지/탄제린/만다린, 바나나의 시장 점유율이 각각 26.6%, 17.5%, 15.7%로 10% 이상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복숭아(5.9%), 포도(4.6%), 딸기(4.2%), 배(3.3%)도 시장 점유율이 3%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나타냄
- 시장 규모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던 크랜베리와 블루베리의 시장 점유율은 아직 0.1% 불과함

〈 2005-10년 과일 시장 점유율 〉



자료 : 유로모니터 2011

2. 생산동향

■ 생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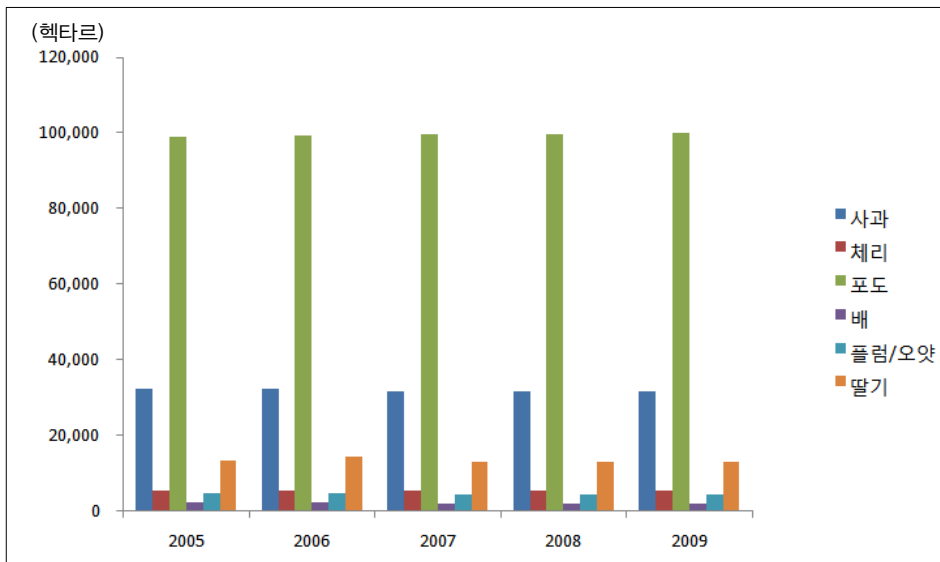
- FAO에서 2011년 5월에 발표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독일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는 사과, 체리, 포도, 배, 플럼/오얏, 딸기 총 6개 과일의 2009년 생산면적을 살펴보면 포도 재배면적이 10만 헥타르 이상으로 가장 넓고 사과 32,000헥타르, 딸기 13,000헥타르, 체리 5,400헥타르, 플럼/오얏 4,500헥타르, 배 2,000헥타르 순으로 나타남
- 가장 생산면적이 넓은 포도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매출액 기준 시장규모 및 시장 점유율에서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산면적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인 사과보다 3배 이상 넓게 나타남
- 이와 같은 현상은 독일에서 생산되는 포도의 대부분이 일반 신선 과일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와인 제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따른 결과로 해석됨
- 또한 앞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던 바나나, 오렌지/탄제린/만다린의 생산면적은 FAO 통계에 집계되지 않아 전량 수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의 생산면적 동향을 보면, 포도가 유일하게 2005년 이후 생산면적이 연평균 0.24%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년간 총 1.2%가 증가함
- 그러나 포도를 제외한 사과, 체리, 플럼/오얏, 딸기 모두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여 2005-09년에 생산면적이 각각 1.6%, 1.6%, 0.6%, 3.4% 감소함
- 배의 경우 해마다 소폭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나, 이 역시 2005-09년 전체적으로는 생산면적이 4.4% 감소함

〈 과일 종류별 생산면적 현황 〉

(단위 : 헥타르,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8-09 성장률	2005-09 성장률
사 과	32,339	32,504	31,721	31,800	31,813	0.0	-1.6
체 리	5,528	5,561	5,443	5,449	5,440	-0.2	-1.6
포 도	98,875	99,172	99,702	99,700	100,101	0.4	1.2
배	2,189	2,226	2,097	2,090	2,093	0.1	-4.4
플럼/오얏	4,562	4,590	4,533	4,539	4,534	-0.1	-0.6
딸 기	13,435	14,214	13,013	13,032	12,978	-0.4	-3.4

자료 : FAO



자료 : FAO 식품농업기구

■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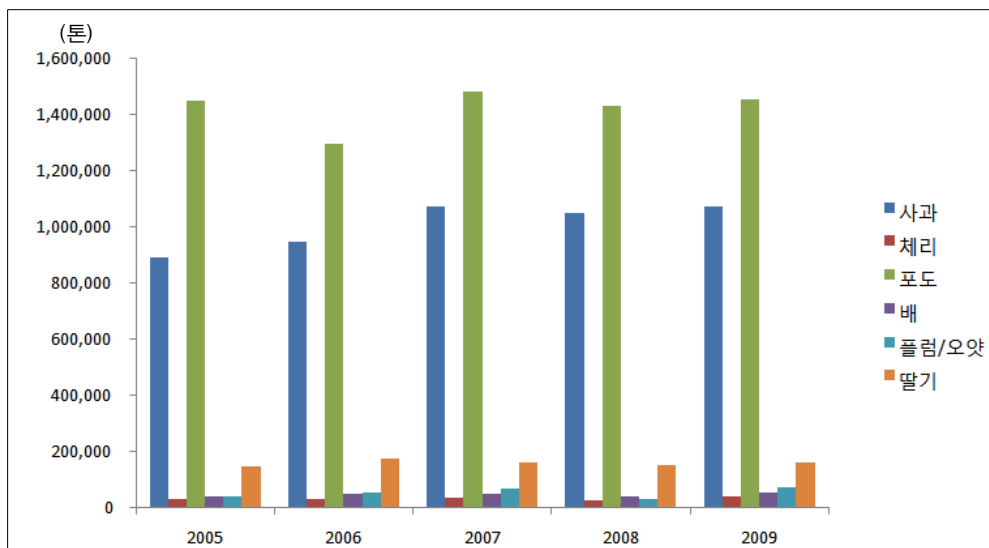
- 독일의 과일 생산면적은 포도를 제외하고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생산량을 보면 전체적으로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과일 종류별 생산량 〉

(단위 : 톤,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8-09 성장률	2005-09 성장률
사 과	891,402	947,611	1,070,040	1,047,000	1,070,680	2.3	20.1
체 리	27,911	31,637	34,452	25,166	39,463	56.8	41.4
포 도	1,449,000	1,294,710	1,480,680	1,428,780	1,456,000	1.9	0.5
배	38,259	48,586	49,918	38,076	52,319	37.4	36.7
플럼/오얏	40,114	51,523	65,290	31,363	73,102	133.1	82.2
딸 기	146,500	173,230	158,658	150,854	158,563	5.1	8.2

자료 : FAO



자료 : FAO 식품농업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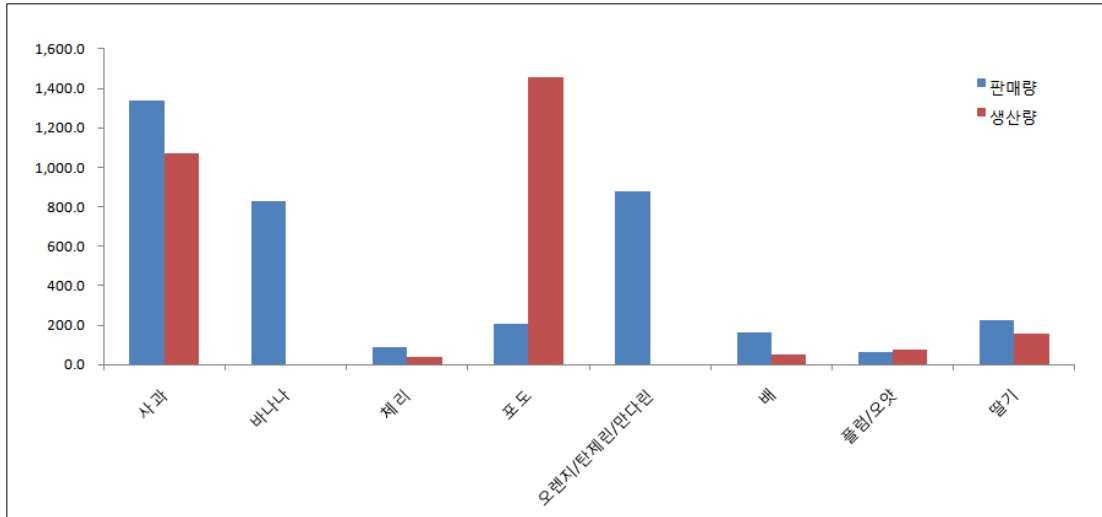
-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일인 사과는 2005년 이후 연평균 4% 가량씩 매년 증가하여 2005년에는 90만 톤에 조금 못 미치는 양을 생산하였으나 2009년에는 107백만 톤에 달하면서 20.1%의 성장률을 기록함
- 가장 생산량이 많이 증가한 과일은 플럼/오얏으로, 2005년 이후 5년간 무려 82.2%가 증가, 급속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 독일산 플럼/오얏은 2005년 4만 톤에서 2009년 7만 3천 톤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크게 증가함
- 반면, 주로 와인 제조용으로 재배되고 있는 포도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생산량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과일은 딸기로, 2005년 이후 생산량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나 5년 동안 생산량은 8.2%가 증가함
- 독일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은 신선 과일은 사과이며, 다음으로 딸기, 플럼/오얏, 배, 체리 순으로 나타남

■ 생산량 대비 판매량

- 2009년 과일 종류별 생산량과 판매량을 살펴 보면 바나나, 오렌지/탄제린/만다린은 독일 내에서 생산을 하지 않아 판매량 전부 수입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가장 판매량이 많은 사과와 딸기는 자급 조달률이 각각 80%, 70.7%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체리와 배는 50% 미만으로 자급 조달률이 낮음

〈 과일별 생산량 및 판매량 비교('09) 〉

(단위 : 천 톤)



자료 : FAO 식품농업기구 및 유로모니터

〈 과일별 자급 조달률('09) 〉

(단위 : 천 톤, %)

구분	생산량	판매량	자급 조달률
사과	1,070.7	1,338.3	80.0
바나나	0.0	828.3	0.0
체리	39.5	86.1	45.9
포도	1,456.0	205.0	710.2
오렌지/탄제린/만다린	0.0	878.4	0.0
배	52.3	165.7	31.6
플럼/오얏	73.1	65.6	111.4
딸기	158.6	224.4	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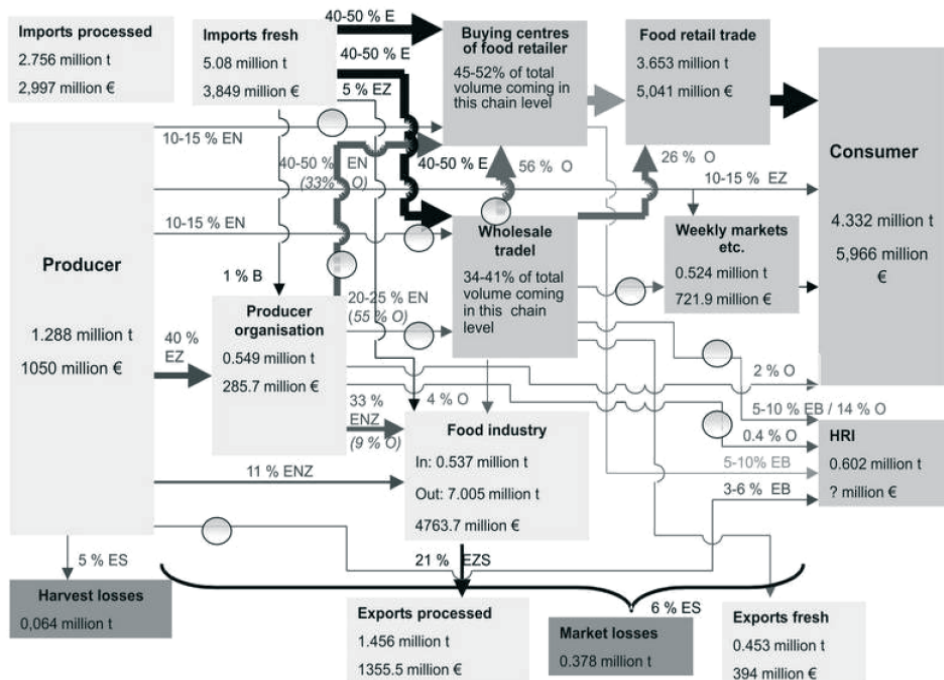
자료 : FAO 식품농업기구 및 유로모니터

3. 유통동향

▣ 과일 유통구조

- 유럽 연합의 MEDFROL Project의 일환으로 Volker Hart, Aikaterini Kavallari, Michael Schmitz, Tobias C. Wronka가 진행한 ‘독일의 신선 과일 및 야채 유통구조 분석 연구(Supply Chain Analysis of Fresh Fruit and Vegetables in Germany)’에서 정리한 독일의 과일 유통구조 체계는 크게 수입 과일과 독일 국내산 과일로 구분할 수 있음
- 수입 과일의 경우, 수입 후 주로 식품 소매업체들의 구매 센터(45-52%) 또는 도매업체(34-41%)로 유통되고, 소수의 양이 식품 제조업체(4%) 또는 생산자 조직(1%)으로 유통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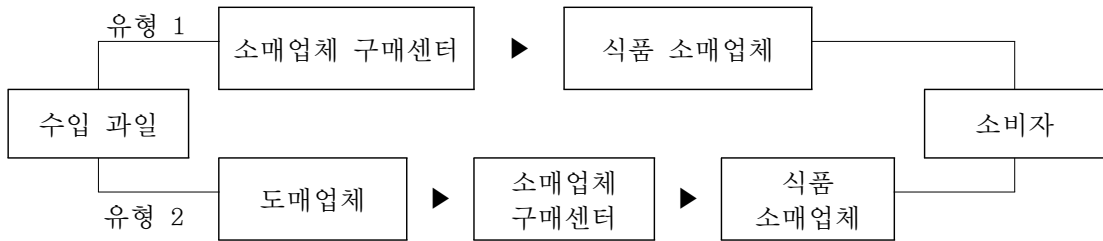
〈 독일 신선 과일 유통구조도 〉



자료 : MEDFROL Project, 2007

- 수입 과일 유통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소매업체 구매센터 및 도매업체를 중심으로 유통 구조를 정리해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음

〈 수입 과일의 유통 구조 〉



- 반면, 독일에서 생산된 과일의 유통체계는 보다 복잡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생산자 조직, 소매업체 구매센터, 도매업체, 식품 소매업체, 식품 제조업체, 주말 마켓 등의 유통 과정에 관련되어 있으며 생산자로부터 소비자 사이에 몇 단계를 거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유통업체 유형별 과일 판매비율

- 유로모니터에서는 독일의 과일 판매 유통 유형을 크게 소매업체와 식품 서비스 업체와 같은 기타로 구분하여 분석함
- 그 결과 2010년을 기준으로 소매업체를 통해 판매되는 비율은 85.8%, 기타는 14.2%로 나타남
- 소매업체를 통해 판매되는 과일의 비율은 2005년 84.6%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0.1-0.4%씩 증가하여 2010년 85.8%에 달함으로써 6년간 1.2%가 증가함

〈 독일 내 과일 유통비율 〉

(단위 :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소매업체	84.6	85.0	85.3	85.5	85.7	85.8
기 타	15.4	15.0	14.7	14.5	14.3	14.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유로모니터 2011

- 이와 같은 소매업체의 비율 증가는 디스카운터 업체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음
- 2010년 디스카운터 업체 중 하나인 페니(Penny)는 독일 국민의 과일 섭취량을 장려하기 위해서 일반 슈퍼마켓의 평균 과일 가격보다 23%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과일 판매 촉진 마케팅을 실시함
- 이와 같은 가격 덤핑 캠페인은 가격에 민감한 독일 소비자들에게 효과를 발휘하여 과일 판매량이 증가함
- 또한 이와 같은 디스카운터 업체들의 저가 공략과 이들 업체들의 과일 시장 장악으로 인하여 과일 공급업체들의 과일 시장 내 파워는 매우 약한 것으로 데이터모니터는 평가하고 있음

☐ 독일 유통업체의 과일 판매형태

구분	상 품	특 징
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g 2.79유로 - PET 용기 또는 지퍼백에 500g 등 특정 중량씩 담아서 판매 - 일반 슈퍼마켓에서는 주로 씨 없는 포도 판매

딸기



- 딸기는 과일 판매 바구니(punnet)에 일정 분량씩 담아 판매
- 대체적으로 한 박스에 12개 딸기 바구니를 담은 형태로 유통되고 있음
- 딸기 바구니를 비닐에 넣어 포장을 하기도 하고 그림과 같이 바구니에 담은 상태로만 판매하기도 함

사과



- 많은 슈퍼마켓에서 사과를 낱개로 판매하고 있음
-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과들이 서로 눌리지 않도록 1단으로만 담고 있음
- 또한 운반과정에서 흔들림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상자 바닥에 흠이 파여져 있는 종이 틀을 넣어 포장함
- 과일마다 브랜드 또는 원산지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하기도 함

배



- 배도 사과와 마찬가지로 낱개 판매하고 있음
-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배들이 서로 눌리지 않도록 1단으로만 담고 있음
- 또한 운반 과정에서 흔들림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상자 바닥에 흠이 파여져 있는 종이 틀을 넣어 포장함
- 과일마다 브랜드 또는 원산지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하기도 함

4. 수입동향

■ 전체 수입규모

- 독일이 연간 수입하고 있는 과일 규모는 금액으로는 76억 달러, 한화 약 8조 원, 물량으로는 5.5백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각각 1.3%, 4.3%가 감소한 수치임

〈 독일의 국가별 과일 수입규모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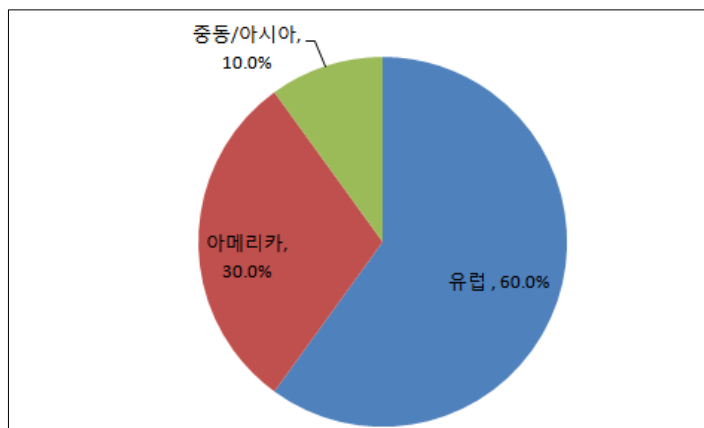
(단위 : 천 달러, 톤, %)

국 가	2008년		2009년		2010년		2009-10년 성장률		2008-10년 성장률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전 체	8,876,242	5,847,536	7,715,923	5,751,434	7,612,034	5,501,463	-1.3	-4.3	-14.2	-5.9
스페인	1,592,691	1,251,606	1,533,417	1,344,995	1,547,718	1,327,090	0.9	-1.3	-2.8	6.0
네덜란드	1,484,895	866,091	1,345,059	846,048	1,272,066	780,470	-5.4	-7.8	-14.3	-9.9
이탈리아	1,314,615	850,939	1,013,744	821,366	1,013,709	805,603	0.0	-1.9	-22.9	-5.3
벨기에	811,533	573,413	788,151	607,637	648,552	517,063	-17.7	-14.9	-20.1	-9.8
터 키	428,392	99,877	356,328	106,479	435,726	109,305	22.3	2.7	1.7	9.4
미 국	377,604	99,309	319,141	91,224	350,845	91,498	9.9	0.3	-7.1	-7.9
프랑스	424,699	220,719	356,126	211,338	306,597	198,483	-13.9	-6.1	-27.8	-10.1
그리스	217,104	140,272	166,309	127,698	168,210	143,494	1.1	12.4	-22.5	2.3
폴란드	230,967	146,351	164,405	135,983	158,095	122,456	-3.8	-9.9	-31.6	-16.3
오스트리아	167,711	99,635	150,795	96,454	157,558	101,304	4.5	5.0	-6.1	1.7
룩셈부르크	135,194	19,447	139,292	18,477	137,808	20,195	-1.1	9.3	1.9	3.8
이 란	136,521	23,727	103,798	14,887	131,252	20,060	26.4	34.7	-3.9	-15.5
에콰도르	232,837	356,673	191,276	337,537	127,896	246,607	-33.1	-26.9	-45.1	-30.9
콜롬비아	159,704	261,326	150,587	262,086	127,188	226,643	-15.5	-13.5	-20.4	-13.3
코스타리카	125,137	182,314	96,795	151,255	110,278	185,606	13.9	22.7	-11.9	1.8
중 국	106,561	48,987	82,471	41,363	89,802	42,659	8.9	3.1	-15.7	-12.9
세르비아	85,517	41,225	89,111	53,246	80,575	55,137	-9.6	3.6	-5.8	33.7
칠 레	86,583	27,545	56,818	22,843	64,813	21,769	14.1	-4.7	-25.1	-21.0
영 국	50,129	18,222	47,140	20,538	59,726	34,550	26.7	68.2	19.1	89.6
파나마	146,234	195,762	72,147	125,510	58,693	121,881	-18.6	-2.9	-59.9	-37.7
한 국	124	64	110	50	198	110	80.0	120.0	59.7	71.9

자료 : GTA

- 독일이 가장 많이 과일을 수입하고 있는 국가는 스페인, 네덜란드, 이탈리아 순으로, 이 3개 국가에서 수입된 과일이 전체 수입규모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50% 이상임
- 스페인으로부터의 수입규모가 가장 큰 것은 독일에서 가장 인기 많은 과일 중 하나이면서 독일 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있는 오렌지/탄제린/만다린을 중심으로 한 감귤류 제품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임
- 최근 3년간 국가별 수입규모 동향을 살펴보면 수입규모 상위 3개국 중에서 스페인을 제외한 네덜란드와 이탈리아는 전반적으로 3년 연속 수입액과 수입량이 감소하고 있음
- 네덜란드의 경우, 2008년 수입물량이 87만 톤에 달하였으나 다음 해에는 85만 톤으로 감소하였고, 2010년에는 80만 톤에 못 미치는 78만 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상위 20개국 중에서 최근 3년간 수입규모가 증가한 국가로는 터키, 룩셈부르크, 영국이 있으며, 반대로 수입규모가 10% 이상 감소한 국가로는 벨기에, 프랑스, 폴란드, 에콰도르, 콜롬비아, 중국, 칠레, 파나마가 있음
- 수입규모 상위 20개국을 세계 지역별로 나누어 비율을 분석해 보면, 과반수가 넘는 수입 과일의 60%가 인근 유럽에서 수입되고 있고 30%는 미국,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등과 같은 아메리카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10%만이 중동/아시아에서 수입됨

〈 독일의 세계 지역별 과일 수입비중('10) 〉



자료 : GTA

■ 아시아 제품 수입규모

-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서 독일로 수입되는 과일이 전체 과일 수입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함
- 중국만이 유일하게 수입규모 약 9천만 달러, 4만 톤 이상으로 상위 20개국 안에 속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아시아 지역에서의 수입규모 순위를 보면, 중국이 가장 크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한국 순으로 조사됨
-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은 주로 망고, 파인애플 등의 열대과일을 독일로 수출하고 있음
- 최근 3년간의 수입규모 동향을 보면, 중국의 경우 2009-10년에는 수입액과 수입량이 각각 8.9%, 3.1%를 기록하여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8년 대비 15.7%, 12.9%가 감소함
- 2위 베트남은 수입액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수입량은 오히려 감소하여 단위당 수입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 반면, 태국은 전반적으로 수입액과 수입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08년 수입액 8백만 달러, 수입량 2천 톤에서 2009년에는 7.7백만 달러, 1천 8백 톤으로 소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0년에는 수입액과 수입량이 각각 16.2%와 20.2%가 증가한 9백만 달러, 2천 2백 톤을 기록함

〈 아시아 과일 수입규모 현황 〉

(단위 : 천 달러, 톤, %)

국 가	2008년		2009년		2010년		2009-10년 성장률		2008-10년 성장률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전 체	8,876,242	5,847,536	7,715,923	5,751,434	7,612,034	5,501,463	-1.3	-4.3	-14.2	-5.9
중 국	106,561	48,987	82,471	41,363	89,802	42,659	8.9	3.1	-15.7	-12.9
베트남	17,611	4,867	15,592	4,030	19,178	4,016	23.0	-0.3	8.9	-17.5

인도네시아	9,465	5,066	7,839	5,027	9,417	5,494	20.1	9.3	-0.5	8.4
태국	7,919	2,087	7,668	1,828	8,907	2,198	16.2	20.2	12.5	5.3
필리핀	11,776	6,294	9,516	7,306	6,597	4,849	-30.7	-33.6	-44.0	-23.0
한국	124	64	110	50	198	110	80.0	120.0	59.7	71.9
싱가포르	198	59	387	306	161	66	-58.4	-78.4	-18.7	11.9

자료 : GTA

■ 품목별 수입동향

- 품목별 수입동향을 통해 독일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는 과일을 살펴보면, 수입물량을 기준으로 독일에서 생산되지 않는 바나나와 감귤류가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2010년 바나나는 1.2백만 톤이 수입되었으며 감귤류 역시 1백만 톤이 조금 넘는 1,079,973톤이 수입됨
- 바나나와 감귤류 외에 가장 많이 수입된 품목은 독일에서 가장 소비량이 많은 과일인 사과로, 연간 77만 톤이 수입됨

〈 과일 품목별 수입현황 〉

(단위 : 천 달러, 톤, %)

품목 및 HS Code	2008년		2009년		2010년		2009-10년 성장률	
	수입 금액	수입 물량	수입 금액	수입 물량	수입 금액	수입 물량	수입 금액	수입 물량
코코넛, 브라질넛, 캐슈넛 (0801)	159,785	42,974	188,256	45,971	200,160	48,422	6.3	5.3
신선 또는 건조 기타 견과류 (0802)	1,315,820	221,789	1,216,315	220,367	1,317,326	218,500	8.3	-0.8
신선 또는 건조 바나나(0803)	1,113,356	1,407,531	993,528	1,330,621	876,922	1,235,823	-11.7	-7.1
신선 또는 건조 대추야자, 무 화과, 파인애플, 아보카도, 구 아바, 망고(0804)	424,408	284,200	401,648	291,312	402,805	281,935	0.3	-3.2

한·EU FTA 체결에 따른 수출 유망 품목 : 과일

신선 또는 건조 감귤류(0805)	1,191,745	1,137,511	1,157,264	1,173,865	1,077,429	1,079,973	-6.9	-8.0
신선 또는 건조 포도(0806)	904,630	446,613	735,707	392,924	722,365	356,487	-1.8	-9.3
신선 멜론(수박 포함) 및 파파야(0807)	314,640	357,072	265,420	342,508	290,752	406,132	9.5	18.6
신선 사과 및 배(0808)	996,939	832,481	777,237	850,929	751,694	770,068	-3.3	-9.5
신선 살구, 체리, 복숭아, 자두(0809)	825,080	441,116	603,515	429,906	613,855	409,111	1.7	-4.8
기타 신선 과일(0810)	782,033	307,157	688,350	325,215	661,493	307,735	-3.9	-5.4
조리 또는 비조리 냉동 과일 및 견과류(0811)	637,647	309,652	508,514	300,289	515,791	336,118	1.4	11.9
즉시 섭취 가능한 보존된 과일 및 견과류(0812)	2,187	1,068	2,266	1,588	3,057	2,229	34.9	40.4
과일 및 견과류 혼합(0813)	202,813	56,036	172,729	43,121	173,369	46,195	0.4	7.1
신선, 냉동, 건조 또는 보존된 감귤류 또는 멜론 껍질(0814)	5,161	2,335	5,172	2,818	5,016	2,734	-3.0	-3.0

자료 : GTA

- 사과의 경우, 독일 내 생산량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일반적인 간식 또는 디저트로서의 섭취 외에도 사과 사이드 제조와 같은 관련 식품 원료로서의 소비량도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어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품목별 수입규모를 살펴보면, 신선 또는 건조 견과류가 13억 달러치가 수입되어 1위로 나타났으며, 감귤류도 견과류와 함께 10억 달러 이상이 수입된 것으로 집계됨
- 또한 5억 달러 규모 이상으로 수입된 과일로는 바나나(8.7억 달러), 사과/배(7.5억 달러), 포도(7.2억 달러), 기타 신선과일(6.6억 달러), 살구/체리/복숭아/자두(6.1억 달러), 조리 또는 비조리 냉동과일 및 견과류(5.2억 달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최근 3년간의 수입규모 동향을 보면, 바나나, 감귤류, 사과 및 배 등 주로 소비량이 많은 과일을 중심으로 수입규모가 감소한 반면, 즉시 섭취 가능한 보존된 과일 및 견과류와 같은 소비자들의 편이성을 고려한 과일 제품들과 견

과류 제품들의 수입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바나나의 경우, 최근 3년 연속 수입규모가 감소하여 2008년에는 수입액과 수입량이 각각 11억 달러, 1.4백만 톤을 기록하였으나 2009년에는 10억 달러, 1.3백만 톤, 2010년에는 8.8억 달러, 1.2백만 톤으로 감소함
- 또한 사과 및 배도 2008년에 10억 달러, 83만 톤에서 2009년에 7.8억 달러, 85만 톤, 2010년에 7.5억 달러, 77만 톤으로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반면, 코코넛, 브라질넛, 캐슈넛은 2008년 1.6억 달러, 4.3만 톤에서 2009년 1.9억 달러, 4.6만 톤, 2010년 2.0억 달러, 4.8만 톤으로,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은 25%, 수입물량은 13%가 증가함
- 또한 즉시 섭취 가능한 보존된 과일 및 견과류는 2008년 2.2백만 달러, 1천여 톤에서 2009년 2.3백만 달러, 1.6천 톤으로 성장했으며 2010년에는 3백만 달러, 2.3천 톤, 수입금액 34.9%, 수입물량 40.4%를 기록함

■ 품목에 따른 국가별 수입동향

- 2010년 한국은 독일을 대상으로 총 약 20만 달러, 110톤 규모의 과일을 수출함
- 이 중 90% 이상이 사과와 배로 조사되었으며 소량의 신선 또는 건조 기타 견과류, 기타 신선과일, 과일 및 견과류가 독일로 수입됨

〈 한국산 과일의 품목별 수입 비중('10) 〉

품목명	수입액	수입물량
신선 또는 건조 기타 견과류(0802)	5.1%	1.8%
신선 사과 및 배(0808)	91.4%	95.5%
기타 신선 과일(0810)	3.0%	2.7%
과일 및 견과류 혼합(0813)	0.5%	0.0%
전 체	100.0%	100.0%

자료 : GTA

- 따라서 한국산 과일 중 독일로 수입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규모 상위 3개국의 수입동향을 조사함
- 한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는 신선 사과 및 배의 경우, 이탈리아로부터 가장 많은 연간 32만 톤이 수입되고 있으며, 네덜란드 19만 톤, 프랑스 6만 6천 톤으로 집계됨
- 한국산 신선 사과 및 배의 수입단가를 이 3개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산의 가격은 수입단가가 가장 높은 이탈리아의 1.11달러보다 0.60달러가 높은 1.71달러로 나타났으며 3개국 평균인 1.19달러보다도 0.52달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현재 한국산 제품이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유럽산 제품들과 비교하여 뒤처지고 있는 것을 보여줌
- 기타 견과류의 경우, 미국, 터키, 룩셈부르크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 3개국에서 수입되는 물량은 2010년 미국 6.8만 톤, 터키 4.0만 톤, 룩셈부르크 2.0만 톤이며 한국에서는 2톤이 수입됨
- 수입 단가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5.00달러로 단가가 가장 낮은 미국보다는 0.63달러가 높으나 터키와 룩셈부르크보다는 각각 1.79달러, 2.12달러가 낮아 가격 경쟁력이 뛰어남

〈 품목에 따른 국가별 수입동향 〉

(단위 : 천 달러, 톤, 달러)

품 목	국 가	2008년		2009년		2010년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단가
신선 또는 건조 기타 견과류(0802)	미 국	305,190	65,782	255,838	65,963	297,624	68,147	4.37
	터 키	277,525	40,010	205,669	34,047	268,418	39,505	6.79
	룩셈부르크	127,318	17,337	139,130	18,403	135,863	19,074	7.12
	한 국	1	0	5	1	10	2	5.00
신선 사과 및 배 (0808)	이탈리아	407,516	307,495	327,762	334,756	351,972	317,528	1.11
	네덜란드	267,894	222,689	205,991	223,420	179,506	189,474	0.95
	프랑스	94,592	76,195	67,050	62,725	64,799	65,553	0.99
	한 국	116	63	98	47	180	105	1.71

기타 신선 과일 (0810)	스페인	223,435	76,843	224,879	92,434	223,237	92,706	2.41
	네덜란드	125,042	38,384	124,512	43,992	132,298	41,885	3.16
	이탈리아	162,091	75,276	120,086	79,861	116,289	78,134	1.49
	한 국	0	0	2	0	6	3	2.00
과일 및 견과류 혼합 (0813)	터 키	34,769	10,130	33,959	11,102	38,409	10,762	3.57
	칠 레	30,249	7,732	18,892	5,461	23,353	7,188	3.25
	미 국	28,292	6,612	32,384	6,859	23,256	6,934	3.35
	한 국	4	0	3	1	1	0	0

자료 : GTA

■ 수입가격 비교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수입과일 가격의 변화를 보면 2008년에 1.52달러로 가장 높았다가 다음해 1.34달러로 다소 큰 폭으로 감소했다가 2010년에 소폭 상승하여 1.38달러를 기록함
- 국가별로 과일 수입가격을 보면, 룩셈부르크와 이란의 수입가격이 각각 6.82달러, 6.54달러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요 과일 품목이 견과류라는 것과 관련이 높음
- 반면, 에콰도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는 0.6달러가 채 되지 않는 0.5달러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이들 국가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는 바나나의 수입단가가 다른 과일에 비해서 낮기 때문임

〈 국가별 과일 수입가격 현황 〉

(단위 : 달러)

국 가	2008년	2009년	2010년
전 체	1.52	1.34	1.38
스페인	1.27	1.14	1.17
네덜란드	1.71	1.59	1.63
이탈리아	1.54	1.23	1.26
벨기에	1.42	1.30	1.25

한·EU FTA 체결에 따른 수출 유망 품목 : 과일

터 키	4.29	3.35	3.99
미 국	3.80	3.50	3.83
프랑스	1.92	1.69	1.54
그리스	1.55	1.30	1.17
폴란드	1.58	1.21	1.29
오스트리아	1.68	1.56	1.56
룩셈부르크	6.95	7.54	6.82
이 란	5.75	6.97	6.54
에콰도르	0.65	0.57	0.52
콜롬비아	0.61	0.57	0.56
코스타리카	0.69	0.64	0.59
중 국	2.18	1.99	2.11
세르비아	2.07	1.67	1.46
칠 레	3.14	2.49	2.98
영 국	2.75	2.30	1.73
파나마	0.75	0.57	0.48
한 국	1.94	2.20	1.80

자료 : GTA

- 과일 품목별로 수입가격을 비교해 보면, 기타 견과류가 6.03달러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코코넛, 브라질넛, 캐슈넛 4.13달러, 과일 및 견과류 혼합 3.75달러 순임
- 반면, 바나나와 신선 멜론 및 파파야는 각각 0.71달러와 0.72달러로 수입가격이 가장 낮은 품목으로 조사되었으며 사과 및 배, 감귤류도 1.0달러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수입가격이 낮은 품목으로 나타남
- 품목별로 한국산 수입가격과 전체 수입가격을 비교해 보면, 기타 견과류는 한국산이 전체 수입가격보다 1.0달러 가량 낮고, 사과 및 배는 0.73달러 높고, 기타 신선 과일은 0.15달러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

〈 과일 품목별 수입가격 현황 〉

(단위 : 달러)

품목 및 HS Code	2008년	2009년	2010년
코코넛, 브라질넛, 캐슈넛(0801)	3.72	4.10	4.13
신선 또는 건조 기타 견과류(0802)	5.93	5.52	6.03
신선 또는 건조 바나나(0803)	0.79	0.75	0.71
신선 또는 건조 대추야자, 무화과, 파인애플, 아보카도, 구아바, 망고(0804)	1.49	1.38	1.43
신선 또는 건조 감귤류(0805)	1.05	0.99	1.00
신선 또는 건조 포도(0806)	2.03	1.87	2.03
신선 멜론(수박 포함) 및 파파야(0807)	0.88	0.77	0.72
신선 사과 및 배(0808)	1.20	0.91	0.98
신선 살구, 체리, 복숭아, 자두(0809)	1.87	1.40	1.50
기타 신선 과일(0810)	2.55	2.12	2.15
조리 또는 비조리 냉동 과일 및 견과류(0811)	2.06	1.69	1.53
즉시 섭취 가능한 보존된 과일 및 견과류(0812)	2.05	1.43	1.37
과일 및 견과류 혼합(0813)	3.62	4.01	3.75
신선, 냉동, 건조 또는 보존된 감귤류 또는 멜론 껍질(0814)	2.21	1.84	1.83
평 균	2.25	2.06	2.08

자료 : GTA

5. 통관 및 수입 검사

▣ 과일 제품의 통관 거부 유형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유럽 내 과일 제품의 통관 거부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독일로의 과일 수입 과정에서 중요한 관련 규정 등을 살펴보고자 함
- 3년간 유럽 긴급 경고 시스템 RASFF에 통관이 거부된 것으로 등록된 과일 제품 사례는 총 547건이며, Aflatoxin과 Ochratoxin과 같은 독소의 검출이 224건으로 거의 절반에 달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 다음으로는 농약 검출과 중금속 검출로 인한 통관 거부가 각각 86건과 74건으로 50건 이상, 곰팡이 발생(38건), 곤충 발견(33건), 제품 부패(32건) 순임

〈 과일 제품 통관 거부 유형 및 건수('08~'10) 〉

통관거부 유형	적발건수	비 고
독소 검출	224	Aflatoxin(199), Ochratoxin(19), Salmonella(6)
중금속 검출	74	tin, cadmium, sulphur
농약 검출	66	Methomyl(22), Cyprodinil, Fludioxnil, diazinon(12), methiocarb, ethion(6), omethoate & dimethoate(20), bromopropylate, imazalil, actamiprid
곰팡이 발생	38	-
곤충 발견	33	-
제품 부패	32	-
관능학적 특성변형	16	-
위생상태 불량	16	-
보관상태 불량	11	-
불충분한 라벨링	5	-
기 타	12	패키지 파손, 유전자 변형, 온도조절 실패, 방사선
전 체	527	-

자료 : 유럽 연합 식품 및 사료 긴급 경고 시스템 RASFF 웹사이트

- 따라서 독소, 농약, 중금속과 같은 생산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사항과 라벨링과 같은 수출 이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봄

☐ 독소 및 중금속 관련 규정

- 유럽연합은 EC 1881/2006을 통해 독성, 중독성을 지니거나 체내에 축적되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독소 및 중금속에 대해 식품 종류별로 최대 허용량을 설정해 놓고 있음
- 따라서 아래 과일별로 독소 및 중금속 최대 허용량을 정리해 놓은 표를 참고하여 이와 같은 이유로 통관 거부를 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독소 및 중금속 최대 허용량 >

코드	식품명	최대허용량(mg/kg)		
		B1	B1, B2, G1, G2 합계	M1
2,1	Aflatoxins	B1	B1, B2, G1, G2 합계	M1
2.1.1.	땅콩 및 기타 오일 제조용 씨	8.0	15.0	-
2.1.2.	가공 전 아몬드, 피스타치오, 살구	12.0	15.0	-
2.1.3.	가공 전 헤이즐넛, 브라질넛	8.0	15.0	-
2.1.4.	가공 전 기타 견과류	5.0	10.0	-
2.1.5.	땅콩 및 일반 섭취용 기타 오일 제조용 씨	2.0	4.0	-
2.1.6.	즉시 섭취 가능한 아몬드, 피스타치오, 살구	8.0	10.0	-
2.1.7.	즉시 섭취 가능한 헤이즐넛, 브라질넛	5.0	10.0	-
2.1.8.	즉시 섭취 가능한 기타 견과류	2.0	4.0	-
2.1.9.	가공 전 건조 과일	5.0	10.0	-
2.1.10.	즉시 섭취 가능한 건조 과일	2.0	4.0	-
3,1	납	Maximum levels (mg/kg wet weight)		
3.1.12	과일(베리 및 작은 과일 제외)	0.10		
3.1.13	베리 및 작은 과일	0.20		
3,2	카드뮴			
3.2.15	야채 및 과일	0.050		
3,4	주석			
3.4.1.	캔에 든 식품(음료수 제외)	200.0		

자료 : http://ec.europa.eu/food/food/chemicalsafety/contaminants/index_en.htm

FTA 체결 전후 관세 비교

- 과일의 경우, 과일 품목에 따라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 시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품목별로 관세 철폐 시기를 정리하면 배가 관세 즉시 철폐 혜택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관세 축소 적용 후 철폐되기 때문에 배 외에는 즉각적인 관세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움

〈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 시기 〉

CN코드	품목명	철폐 시기
08082050	신선 배	즉시 철폐
08052010	신선 또는 건조 클레멘타인(clementines)	FTA 체결 15년이 되는 첫날
08052050	신선 또는 건조 만다린(mandarins)	FTA 체결 15년이 되는 첫날
08052070	신선 또는 건조 탠저린(tangerines)	FTA 체결 15년이 되는 첫날
08061010	신선 테이블 포도(table grapes)	FTA 체결 17년이 되는 첫날
08081080	신선 사과(사이다용 사과 제외)	FTA 체결 10/20년이 되는 첫날
08091000	신선 살구(apricots)	FTA 체결 7년이 되는 첫날
08093010	신선 승도 복숭아(nectarines)	FTA 체결 10년이 되는 첫날
08093090	신선 복숭아(peaches)	FTA 체결 10년이 되는 첫날
08094005	신선 자두(plums)	FTA 체결 10년이 되는 첫날

자료 : 유럽연합

* 주 : 후지 사과만 FTA 체결 20년이 되는 첫 날 관세 철폐 적용

- 한국 배가 상당히 고가에 수입되고 있던 것을 감안하면 한국산 배의 무관세 적용은 수입가격 하락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원가 자체가 높아 가격 하락 폭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라벨링

- 일반 제품의 라벨 의무 표기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제품 이름
 - 성분 및 성분 함량 또는 성분 카테고리 : 함량이 높은 순으로 표기, 성분 카테고리 및 특정 성분 순으로 표기
 - 알레르기 유발 성분
 - 유효기간 및 보관방법
 - 제조회사 이름 및 주소 또는 유럽 연합 내 수입/판매업자
 - 순 중량
 - 영양성분
 - 원산지
- 신선 과일의 경우, 위의 의무표기 사항 중 성분 및 성분 함량은 예외적으로 표기하지 않아도 됨

6. 한국산 수출 확대 방안

■ 수출과일의 다양화

- 현재 독일이 수입하고 있는 한국산 과일은 사과 및 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량의 기타 과일, 견과류로 제품이 한정적임
- 데이터모니터는 독일 과일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틈새시장을 찾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따라서 독일에서 생산량이 적거나 생산하지 않아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과일 및 견과류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제품을 발굴하여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독일의 기존 과일과 다른 외관과 맛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참외, 유자 등을 중심으로 수출을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음

■ 유럽 유기농 인증 추진

- 독일의 신선 과일 유기농 시장은 다른 유럽에 비해 시장규모가 크고,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 따라서 유럽의 유기농 인증을 추진하여 제품의 품질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임
- 또한 독일의 유통업체들은 과일 입점 시 농약에 대해 매우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유기농 인증이 현지 주류 유통업체 입점 상담 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대형 중간 공급업체 공략

- 기존의 한국산 과일들은 대부분 한국계 수입업체들을 통해 수입되고 있으나 수입물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슈퍼마켓 체인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대형 중간 공급업체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음
- 대형 중간 공급업체들은 제품을 수입하여 2개 이상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어 대형 중간 공급업체들에 직접 제품을 수출하여 한국 과일을 판매하는 소매점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함

▣ 박람회를 통한 바이어 발굴

- 수입 및 공급업체를 발굴할 수 있는 독일의 식음료 관련 박람회로는 매년 독일 Cologne에서 열리는 Anuga FoodTec가 있음
- 또한 유럽의 대표적인 과일 관련 박람회로는 'Fruit Logistica'가 있으며 2012년에는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에서 개최될 예정임

구 분	Anuga FoodTec 2012	Fruit Logistica
개최시기	2012년 3월 27-30일	2012년 2월 08-10일
장 소	독일 cologne exhibition centre	독일 베를린 Messe
웹사이트	www.anugafoodtec.com	www.fruitlogistica.de

▣ 관련 산업잡지를 통한 홍보

-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 수입 또는 공급, 생산업체들은 관련 산업잡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품의 우수성 등을 홍보하고 있음
- 유럽의 기존 과일과 다른 특징을 띠고 있는 과일들의 경우는 이러한 잡지에 광고를 함으로써 관심있는 수입업체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독일에 위치한 이러한 대표적인 산업잡지로는 'Fruchthandel'가 있음
- Fruchthandel는 잡지 구독 외에도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업체들이 잡지 광고와 더불어 온라인 광고도 진행하고 있음

< Fruchthandel 잡지 및 온라인 광고 >





농약 관련 규정

- 현재 영국과 독일에서 농약 잔류량 허용치를 정해 놓고 있는 농약의 수는 무려 400여 가지에 달하고 있어 제품별, 농약별 농약 잔류량에 대한 전수조사는 불가능함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과일과 앞에서 통관 거부 사례에서 적발 수가 많은 농약을 중심으로 농약 잔류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과일별 농약 허용 잔류량 〉

(단위 : mg/kg)

구 분	Diazinon(F)	Dimethoate	Ethion
1. 신선 또는 냉동 과일 및 견과류			
(i) Citrus fruit	0,01*	0,02*	0,01*
Grapefruit(Shaddocks, pomelos, sweeties, tangelo(except mineola), ugli and other hybrids)	0,01*	0,02*	0,01*
Oranges(Bergamot, bitter orange, chinotto and other hybrids)	0,01*	0,02*	0,01*
Lemons(Citron, lemon)	0,01*	0,02*	0,01*
Limes	0,01*	0,02*	0,01*
Mandarins(Clementine, tangerine, mineola and other hybrids)	0,01*	0,02*	0,01*
기 타	0,01*	0,02*	0,01*
(ii) 견과류		0,05*	0,01*
Almonds	0,05	0,05*	0,01*
Brazil nuts	0,01*	0,05*	0,01*
Cashew nuts	0,01*	0,05*	0,01*
Chestnuts	0,01*	0,05*	0,01*
Coconuts	0,01*	0,05*	0,01*
Hazelnuts(Filbert)	0,01*	0,05*	0,01*
Macadamia	0,01*	0,05*	0,01*
Pecans	0,01*	0,05*	0,01*
Pine nuts	0,01*	0,05*	0,01*
Pistachios	0,01*	0,05*	0,01*
Walnuts	0,01*	0,05*	0,01*
기 타	0,01*	0,05*	0,01*

한·EU FTA 체결에 따른 수출 유망 품목 : 과일

(iii) Pome fruit	0,01*	0,02*	
Apples(Crab apple)	0,01*	0,02*	0,01*
Pears(Oriental pear)	0,01*	0,02*	0,01*
Quinces	0,01*	0,02*	0,01*
Medlar	0,01*	0,02*	0,01*
Loquat	0,01*	0,02*	0,5
기 타	0,01*	0,02*	0,01*
(iv) Stone fruit	0,01*		0,01*
Apricots	0,01*	0,02*	0,01*
Cherries(sweet cherries, sour cherries)	0,01*	0,2(ft)	0,01*
Peaches(Nectarines and similar hybrids)	0,01*	0,02*	0,01*
Plums(Damson, greengage, mirabelle, sloe)	0,01*	0,02*	0,01*
기 타	0,01*	0,02*	0,01*
(v) Berries & small fruit		0,02*	
(a) Table and wine grapes	0,01*	0,02*	0,01*
Table grapes	0,01*	0,02*	0,01*
Wine grapes	0,01*	0,02*	0,01*
(b) Strawberries	0,01*	0,02*	0,01*
(c) Cane fruit	0,01*	0,02*	0,01*
Blackberries	0,01*	0,02*	0,01*
Dewberries(Loganberries, boysenberries, and cloudberrries)	0,01*	0,02*	0,01*
Raspberries(Wineberries, arctic bramble/raspberry, (Rubus arcticus), nectar raspberries(Rubus arcticus x idaeus))	0,01*	0,02*	0,01*
기 타	0,01*	0,02*	0,01*
(d) 기 타 small fruit & berries		0,02*	
Blueberries(Bilberries)	0,01*	0,02*	0,01*
Cranberries(Cowberries(red bilberries))	0,2	0,02*	0,01*
Currants(red, black and white)	0,01*	0,02*	0,01*
Gooseberries(hybrids with other ribes species 포함)	0,01*	0,02*	0,01*
Rose hips	0,01*	0,02*	0,1
Mulberries(arbutus berry)	0,01*	0,02*	0,1
Azarole(mediterranean medlar) (Kiwiberry(Actinidia arguta))	0,01*	0,02*	0,1
Elderberries(Black chokeberry(appleberry), mountain ash, buckthorn(sea sallowthorn), hawthorn, service berries, and other treeberries)	0,01*	0,02*	0,01*
기 타	0,01*	0,02*	0,01*
(vi) Miscellaneous fruit			
(a) Edible peel	0,01*		

Dates	0,01*	0,02*	0,01*
Figs	0,01*	0,02*	0,01*
Table olives	0,01*	2	0,01*
Kumquats(Marumi kumquats, nagami kumquats, limequats(Citrus aurantifolia x Fortunella spp.))	0,01*	0,02*	0,01*
Carambola(Bilimbi)	0,01*	0,02*	0,1
Persimmon	0,01*	0,02*	0,01*
Jambolan(java plum) (Java apple(water apple), pomerac, rose apple, Brazilean cherry Surinam cherry(grumichama Eugenia uniflora))	0,01*	0,02*	0,1
기 타	0,01*	0,02*	0,01*
(b) Inedible peel, small	0,01*	0,02*	
Kiwi	0,01*	0,02*	0,01*
Lychee(Litchi) (Pulasan, rambutan(hairy litchi), mangosteen)	0,01*	0,02*	0,01*
Passion fruit	0,01*	0,02*	0,01*
Prickly pear(cactus fruit)	0,01*	0,02*	0,1
Star apple	0,01*	0,02*	0,1
American persimmon(Virginia kaki) (Black sapote, white sapote, green sapote, canistel(yellow sapote), and mammey sapote)	0,01*	0,02*	0,1
기 타	0,01*	0,02*	0,01*
(c) Inedible peel, large		0,02*	
Avocados	0,01*	0,02*	0,01*
Bananas(Dwarf banana, plantain, apple banana)	0,01*	0,02*	0,01*
Mangoes	0,01*	0,02*	0,01*
Papaya	0,01*	0,02*	0,01*
Pomegranate	0,01*	0,02*	0,01*
Cherimoya(Custard apple, sugar apple(sweetsop), llama and other medium sized Annonaceae)	0,01*	0,02*	0,1
Guava(Red pitaya or dragon fruit(Hylocereus undatus))	0,01*	0,02*	0,1
Pineapples	0,3	0,02*	0,01*
Bread fruit(Jackfruit)	0,01*	0,02*	0,1
Durian	0,01*	0,02*	0,1
Soursop(guanabana)	0,01*	0,02*	0,1
기 타	0,01*	0,02*	0,01*

자료 : http://ec.europa.eu/sanco_pesticides/public/index.cfm?event=substance_resultat&s=1

* 주 : 유럽연합에서는 dimethoate와 omethoate를 통합하여 dimethoate라고 칭함

한·EU FTA 체결에 따른 수출유망품목(과일)

발행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발행일 : 2011년 10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조사참여 : 유럽 - 로테르담 aT센터

총괄 - 식품수출정보팀(오유경)

문의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수출정보팀

02) 6300-1399

본 자료는 KATI(www.kati.net) > 무역정보 > 발간책자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우리 공사는 임직원에 대한 부정비리 신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신자부담 「24시간 부정비리 신고 모바일 핫라인(080-112-2580)」을 개설하였습니다. 신고 내용은 비밀이 절대 보장되오니 안심하시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